



2020.12.31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0-26호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할까

박상훈 지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할까



연구진

내부 연구진

박상훈 초빙연구위원(연구책임자)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발 | 간 | 사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 적법한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통해 운영된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대표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위치가 '입법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들을 가리켜 국회의원이라 부르는데, 우리 헌법은 의원에게 국회를 구성하는 일개 개인이 아니라 독립된 입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는 300명의 입법자 내지 300개 입법조직의 활동을 통해 움직여지는 복합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국회의 미래상은 결국 말과 행위의 규범성을 갖춘 의원의 미래상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이다.

의원의 말과 행위를 다루는 이번 연구는 두 개의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하나는 각국의 의원 행위 규범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완성한 <국회의원은 어떤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이다. 의원품위규칙(Rules of Decorum) 내지 의회 토론 시 준수해야 할 품위규칙(Rules of Decorum & Debate in the House)에서 보듯, 의원들의 정치 행위나 언어 사용에서 중시해야 할 규범성은 오래된 역사적 원천을 갖고 있다. 그 핵심은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은 스스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국회 밖 외부자나 외부기관에 의원의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하는 것에 어느 나라 의회든 매우 신중하다. 면책특권을 갖고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이 입법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일이다. 따라서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을 사례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의원들 사이의 자율적 행위 규제 원리로서의 수많은 규범 형성 노력이 있어 왔고, 이를 어기는 것을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으며 그 핵심은 의원 자치 규범을 발전시키는 데 있음을 실증한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거나 외적 규제나 제재의 대상자로 여겨 온 기존의 법·제도 중심의 접근과 그 실효성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그간 '윤리특위 상설화'나 '윤리심사위원회 구성의 비당파성 조항 신설', '국민배심원제 도입',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 강화' 등이 제안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보다는 1992년 제정된 이후 형식적으로만 존재해 온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좀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새로 제정하려는 노력에 의원들 스스로가 나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보고서의 결론은 중요하다.

두 번째 보고서는 의원의 말과 정치 언어를 정치사상의 한 분과학문인 수사학의 관점에

서 다룬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이다. 이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좀 더 단단하게 통합해낼 수 있도록 수사학의 철학적 전통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번째 보고서는 ‘수사학과 정치 연설’을 주제로 강의 시리즈 기획을 요청했던 의원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향후 의원 연구모임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월 4일에 구성된 뒤 16번의 공청회, 6번의 온라인 토론회 개최, 10개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0년 3월 10일 하원 결의안과 2020년 10월 31일에 최종보고서를 낸 미국 하원의 특위(Select Committee on the Modernization of Congress)는 초선 의원들에 대한 정치 언어 교육을 강조하며 ‘의회리더십아카데미’(Congressional Leadership Academy)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하원선거 일과 하원의원 취임일 사이의 총 57일 중 가운데 2019년에는 18일 동안 초선의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우리 국회 역시 이와 같은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결과보고서는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본 원의 박상훈 박사의 총괄 아래 최하에 연구원 그리고 문지혜 연구 조원에 의해 마무리되었다. 박상훈 박사는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를 집필했고, 〈국회의원은 어떤 행위 규범을 준수해야 하나〉에서는 1장을 집필했다. 2장 이하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차재권 부경대학교수와 김욱 배재대학교수, 김영태 목포대학교수, 김종법 대전대학교수가 집필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국회부의장실의 최해선 비서관과 홍정민 의원실의 주영민 비서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었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국회의원이 신뢰받고 존경받는 입법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관점의 연구와 함께 좀 더 실효성이 높은 정책 제안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번 결과보고서의 성과가 국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회와 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12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제1장 왜 정치가의 말을 다루는가 1

제1절 말과 정치 3

제2절 정치가의 말 5

제3절 민주주의자의 말 9

제4절 국회에서의 말 11

제5절 수사학 : 공적 언어의 사용 방법론 13

- 1. 그리스의 전통 13
- 2. 로마의 전통 16
- 3. 키케로가 말하는 연설의 5요소 18

제2장 정치 연설의 고전 21

제1절 우리는 민주주의자다 : 페리클레스 23

- 1. 아테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연설 23
- 2. 연설의 주요 내용과 설명 24
- 3. 연설문 읽기 31

제2절 은밀한 정치 기획 : 에이브러햄 링컨 39

- 1. 게티즈버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39
- 2. 논란이 된 링컨의 연설 41
- 3. 헌법이나 독립선언문이나 43
- 4. 그리스적 대조법의 복원 46
- 5. 민주공화정의 전통을 완성한 연설 47
- 6. 흑인 노예제와 남부 문제 : 미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원죄 51

7. 정치가의 슬픈 운명	54
참고. 흑인에게 미국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프레더릭 더글러스	56

제3절 전쟁은 웃으며 하는 거다 : 윈스턴 처칠 61

1. 처칠 연설이 가진 연극적 요소	61
2. 1940년 5월 13일 전시 내각 취임 연설	62
3. 1940년 6월 4일 의회 연설	63
4. 1940년 6월 18일 의회 연설	64
5. 1940년 8월 20일 의회 연설	65
6. 여유와 유머, 웃음을 잃지 않았던 정치가	65
참고1. 전투에 져으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샤를 드골	66
참고2.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프랭클린 루스벨트	68

제3장 오바마와 현대 수사학 79

제1절 왜 오바마 연설인가	81
제2절 오바마 연설의 특별함	85
제3절 연설의 능력을 자각한 오바마	87
제4절 현대 정치 연설의 신기원을 이룬 오바마	89
제5절 말을 가치 있게 만든 정치가	91
제6절 ‘냉소의 정치’ vs ‘희망의 정치’ : 오바마의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94
참고문헌	105
Abstract	111

요 약

1 사업의 목적과 취지

본 과제 <의원의 미래>는 <의원의 말>과 <의원의 행위 규범>이라는 별개의 두 연구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의 말>은 의원연구 모임의 요청(정치인이 알아둬야 할 수사학)에 따라 정치철학의 논의와 주요 정치 연설의 사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의원의 행위 규범>은 전형적인 비교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이런 방법론적 차이로 인해 별도의 두 보고서를 내게 되었고, 이하 내용은 의원의 말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 <의원의 말>은 정치철학의 중심 분야의 하나인 수사학의 전통에 주목하는 것에서 출발해, 수사학의 규범적 기준에 상응하는 정치인의 공적 언어가 갖는 가치를 강조하고 그에 합당한 좋은 예를 발굴,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정치학 연구가 지나치게 수리적 모델과 통계 처리에 의존하면서 내용보다는 방법론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철학적 논의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은 그만한 유익함이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김영배 의원으로부터 '수사학과 정치 연설'을 주제로 강의 시리즈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부응해 작성하게 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수사학의 전통에 대한 소개와 함께, 민주주의 정치의 규범에 상응하는 정치 연설의 사례를 분석하게 된 것은 이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말과 정치 언어가 좀 더 사회를 넓게 대표하고 공동체의 통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가 되기를 바라는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자료>의 성격도 같이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발원한 수사학적 논의를 가져와, 규범적 판단의 풍부한 증거들을 살펴보고 있다. 수사학의 전통이 중세 초에 끊어지고, 근대 이후에 들어서서는 작문과 시 작성에서의 표현 기법에 대한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고전 시대 수사학의 전통은 여전히 정치철학의 학 분야로서 자리를 지켜왔다. 1장은 정치철학의 한 분야로서 수사학의 핵심을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안타깝게도 민주정이나 공화정, 나아가 자유 시민의 역사가 없는 동양에서는 공적 연설의 형태를 띤 수사학의 전통이 약하다. 동양의 정치철학이 갖는 수사학적 힘은 말보다는 작성된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제2장은 공적 언어를 대표하는 정치가들의 연설을 소재로 수사학적 표준이라 불릴만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 분야를 대표하는 것은 고대 페리클레스와 현대 링컨의 연설이 아닐 수 없다.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과 150년 전에 있었던 링컨의 연설을 중심으로, 그리스 시대 수사학이 2천 년을 가로질러 발휘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동시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옹호론 또한 살펴본다. 그밖에 2차대전 중에 있었던 처칠과 드골, 루스벨트의 연설에서는 두려움에 맞선 명예와 용기, 위대함과 희생과 같은 로마 공화주의의 덕목을 볼 수 있다.

제3장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살펴본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그는 ‘현대판 키케로’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인종차별이 심한 것은 물론 전체 유권자 가운데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분의 1밖에 안 되는 미국에서 오바마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연설의 힘’에 있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오바마의 정치 연설이 갖는 수사학적 특징과 함께 대표적인 연설을 살펴본다.

우리 국회의 정치인들이 좀 더 가치 있는 정치 언어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좀 더 단단하게 통합해낼 수 있는 평화의 기획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수사학적 말의 힘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의식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론의 주요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

1) 이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하는 <미래생각> 2020년 9월 23일 자에 “국회의원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① 정치는 말로 일하는 인간 활동 : 민주주의를 이끄는 의회란, 정견을 달리하는 시민 집단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숙의하는 장소를 뜻한다. 프랑스나 미국의 의회를 뜻하는 ‘Assembly’와 ‘Congress’는 함께 모이는 곳을 뜻하고 영국의 의회를 가리키는 ‘Parliament’는 말하는 곳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

집권당과 반대당으로 나뉘어 심의와 토론,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적법한 결정을 이끄는 의회에서 말과 언어는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강제가 아니라 설득의 힘으로 운영되고, 설득은 말의 힘을 통해 작동하는 인간 활동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에서 말, 즉 언어의 중요성을 사실상 최초로 이론화한 철학자다. 그는 자신의 책 『정치학』에서 “인간은 언어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라며 “지성과 덕성을 위해 쓰도록 언어라는 무기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런 무기들은 너무나 쉽게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말이 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인간의 정치 언어는 가장 불경하고 가장 야만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사학(Rhetorike)』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적인 언어(rhe)’를 ‘말하는 사람(tor)’이 ‘발휘해야 할 실력과 솜씨(ike)’가 왜 중요한지를 자세히 논한 바 있다. 그의 스승인 플라톤은 수사학적 설득이란 참된 진리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일’이자 ‘쾌락에 봉사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런 스승의 생각을 비판하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과 수사학이야말로 정치에서 가장 윤리적인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정치란 최선의 지식을 가진 자가 통치하는 것을 뜻한다.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지식의 왕국은 한마디로 말해 ‘식자층의 지배체제(epistocracy)’가 아닐 수 없다. 철학자 내지 전문 지식인 엘리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다수의 지혜 또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다. 훌륭한 정치가라면 다수의 시민을 말로 설득하고 실천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공적 언어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수사학이야말로 정치학의 핵심이라 여기면서, 이를 철학 못지않게 중시한 정치학의 전통으로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치 언어의 세 요소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언어의 수사학적 요소를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로 구분했다. 로고스란 말의 내용(contents)에 대한 책임감을 가리킨다. 무책임한 말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유해한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겠는데, 지금 우리 국회가 이런 비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파토스는 듣는 이(hearers)에 대한 존중을 가리키며 그 핵심은 상대와 공유할 수 있는 삶의 경험(life experience)을 나누는 데 있다.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태가 상대 당 의원이나 정견을 달리하는 시민들과 과연 얼마나 공감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에토스는 공적 윤리에 대한 헌신성을 가리킨다. 에토스는 윤리/윤리학을 뜻하는 ethics의 정치적 얼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speaker)이 가진 인격(character)을 통해 구현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언어의 세 요소 가운데 이 에토스를 가장 중시했는데, 그로부터 신뢰(trust)와 권위(authority)가 발생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를 이끄는 정치인들의 말은 동료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인격성을 갖추고 있는가? 열의 아홉은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 그래서 간혹 경청할 만한 연설이나 말을 한 국회의원들이 더욱 더 주목받는다. 그렇지 않은 의원들의 말은 그의 인격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감성적 공감은 커녕 서로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마저도 엇갈리게 만드는데, 이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의회 공론장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만다.

③ 말의 규범과 전통 : 의회를 움직이는 것은 의원이다. 의원은 입법자(legislator)로서 평등하고 독립된 결정을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다. 의원 개인 자체가 독립된 제도라는 뜻이다. ‘제도로서의 의원’은 소속정당의 크기나 선수, 경력,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성(collegiality)의 원리 혹은 평등한 존경(equality of respect)의 원리로 작동한다. 행정부나 내각에는 ‘prime minister(수상 내지 총리)’가 있다지만, 의회에서는 ‘prime legislator(수석 입법자)’가 없다.

의원이 하나의 독립적인 제도라면, 개별 의원은 의안의 발의에서 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적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말과 행위를 절제할 정도의 ‘품

위와 정중함'(civility)을 갖춰야 한다. civility란 동료 시민에 대한 예의라는 뜻을 가진, 공화정의 정치 전통에서 유래한 용어다.

미국 의회는 2019년 1월 4일부터 2020년 10월 31까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양극화된 정치(political polarization)와 품위상실(incivility) 개선을 목표로 의회선진화특위(Select Committee on the Modernization of Congress)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는 민주-공화 양당 동수로 구성되었고 16번의 공청회와 6번의 온라인 토론회 개최, 10개의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 성과를 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는 초선의원들의 정치적 품위와 정중함을 진작하기 위한 '의회 리더십 아카데미(Congressional Leadership Academy) 신설'을 제안한 권고안도 담겨 있다.²⁾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중심 원리였던 '평등한 발언'(isegoria) 규칙도 중요하다. 타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말의 독점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회가 발전시켜 온 '의원 규범'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그에 적합한 공동의 윤리(decorum)를 발전시키고 또 준수해야 한다. 데코룸(decorum) 역시 행위 주체에 적합한 미덕이나 윤리를 뜻하는 스토아학파의 개념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리스어의 프레폰(prepon)에 해당하는 라틴어 데코룸은 적절하다는 뜻에서 유래한 행위 및 말의 규범으로, 심메트리아(symmetria)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심메트리아가 전체적 통일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데코룸은 전체와의 조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³⁾ 현대 다원주의 규범과도 잘 양립한다. 따라서 대부분 의회는 의원품위규칙(Rules of Decorum)을 갖고 있는바, 최근 미 하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이 논의될 때 법규위원회(Committee on Rules) 위원장이 사전에 발표한 토론 시 준수해야 할 품위규칙(Rules of Decorum & Debate in the House)이 대표적이다.

의회 일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동료의식(philia)도 중요하다. 친애나 우애로 번역되어 온 philia는 이익이나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선과 덕을 복돋는 데 필요한 우정의 원칙을 뜻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중심 개념이다. 앞

2) 자세한 것은 <https://modernizecongress.house.gov/>를 참조할 수 있다.

3) 고대 수사학이 중시한 여러 개념에 대해서는 타타르키비츠(2005) 참조

서 살펴본 미 의회선진화특위는 의원들 사이는 물론 보좌관들 사이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책 형성’ 노력과 ‘초당적 동료 의식 및 신뢰 확대’를 위한 여러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역시 의회정치에서 동료의식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속정당, 이념, 이해관계 등에서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의회정치의 ‘다원주의의 효과’는 이상과 같은 공동의 기반(common ground) 혹은 공유 규범 위에서 발휘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사람이 의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의회를 싸움판으로 만드는 사람이 입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④ 사나운 정치를 낳는 사나운 말 : 국회의원의 말이 사나워지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정치인의 말이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사회 또한 적대와 증오로 분열되기 마련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 성찰’ 대신 상대를 정형화해서 비난하는 언어가 지배하면 제1의 주권기관인 국회는 공동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이런 평범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국회는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할 수 없는 말의 홍기들로 넘쳐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로마 공화정에서 키케로에 의해 전승되었다. 그가 저술한 책들 역시 수사학의 고전이 되었다. 이 책들을 통해 키케로는 혀의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기교나 뻔뻔함이 아니라 진실한 주제를 단어로 담아내는 정치 언어의 수사적 힘을 강조했다. 그의 죽음마저도 ‘비극적 장엄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당시 공화정을 위협했던 안토니우스를 비판한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나이 64세에 키케로는 연설문을 작성했던 두 손과 함께 목이 잘려 광장에 전시되었다.

한때 카이사르는 키케로 책을 몰래 보던 한 젊은이와 부딪혔을 때 얼른 책을 숨기려는 젊은이를 관찮다고 제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참 연설을 잘하는 분이시지. 이보게 젊은이, 그 분은 참 연설을 잘하는 분이시네.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네.” 지금 우리 정치인에게 그런 정도의 진지함과 헌신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해도, 최소한 그 풍모를 닮으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내용 없이 사납기만한 말 대신 균형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결론, 정제된 표현을 중시하는 의원이 많아져야, 정치도 민주주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 1 장

왜 정치가의 말을 다루는가

제1절 말과 정치

제2절 정치가의 말

제3절 민주주의자의 말

제4절 국회에서의 말

제5절 수사학 : 공적 언어의 사용 방법론

제 1절 말과 정치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세상을 만든 것도 말이었고 인간을 만든 것도 말이었다. 인간사회의 변화와 개선을 생각한다면, 누구든 먼저 말로써 일해야 한다. 말로써 ‘변화되고 개선된 미래’를 설득력 있게 정의하는 것, 여기서부터 일은 시작된다.

말은 중요하다. 좋은 말은 ‘가능의 공간’을 확대한다. 나쁜 말은 ‘있던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심리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인간 공동체를 상처로 얼룩지게 하는 것도, 사람들을 생각의 지옥으로 이끄는 것도, 인간의 마음을 절반쯤 ‘살해’하는 것도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만큼 이를 강조한 철학자도 없다. 그에 따르면, 말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이끄는 자연의 선물이다. 그 때문에 인간은 삶의 목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말이 나쁜 인간, 그래서 덕성을 상실한 인간은 야수보다 더 잔혹한 존재가 된다. 인간 이성이 말로 표출되고 또 말로 망가진다는 점에서,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대표작인 『정치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언어(logos)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다. ... 언어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해한지,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밝히는 데 쓰인다. ... 인간은 지성과 덕성을 위해 쓰도록 언어라는 무기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런 무기들은 너무나 쉽게 정반대의 목적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인간은 가장 불경하고 가장 야만적인 존재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2009: 21-22)

정치에서 말은 더더욱 중요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말의 힘’을 통해 작동한다. 권위주의나 전체주의가 ‘강제’와 ‘배제’를 통해 일하는 체제라면, 민주주의는 ‘설득’과 ‘동의’를 통해 일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가란 누구인가? 공적으로 발언하는 일이 직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할까 ...

업인 사람이다. 말을 공동의 힘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들의 좋은 정치 언어는 '있던
갈등'도 줄이고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 공동체의 도덕적 기반을 풍부하게 하는 사회적
효과를 발휘한다.

제2절 정치가의 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정치가의 말은 대개 연설의 형태를 띤다. 연설이란 - 모두 발언, 질의와 응답, 발의와 심의, 변론과 반론, 입장 발표, 시정 발언, 기자 회견, 개회사, 축사, 추도사, 주례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 공적 언어 행위의 대표적인 장르이다. 한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 결정을 이끄는 지도적 혹은 주도적 인간 활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치 행위가 연설이다. 좋은 연설을 하는 능력이야말로 정치가에게 필요한 으뜸의 덕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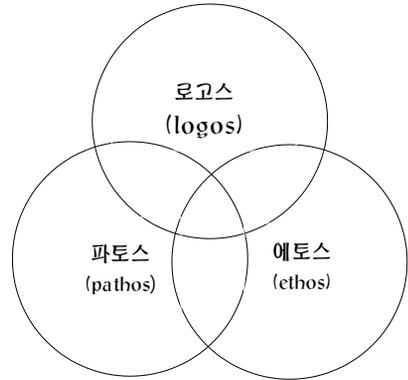
개인 간의 사적 세계에서도 좋은 말로 대화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훌륭한 인간이 되는 데 꼭 필요한 자질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의무로 강제할 수는 없다. 반면에 공적 행위자로서 말하고 대화하고 연설하는 실력을 갖추는 일은 정치가의 의무이자 규범이다. 어떤 인간 공동체에서든 공적 언어의 좋은 효과 없이 집단적 결정이 평화롭고 가치 있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치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기회는 말이 좋은 사람에게 맡겨져야 하며, 말이 나쁜 정치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일반 시민 역시 정치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가졌다. 그 기회를 활용해 ‘평등한 발언권’(isegoria)을 행사하는 것을 ‘시민의 자유’라 여겼다. 오늘날에는 공적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사적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자유로 여기는데, 그런 ‘근대적 자유’와는 대조적으로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적 삶에 참여하는 것을 자유로 여겼다는 사실이 흥미롭다.⁴⁾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지식인 집단의 출현은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민회에서 발언하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방법, 즉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4) 고대 아테네에서의 자유 개념과 근대의 자유 개념의 차이에 대한 고전적 논의는 방자맹 콩스탕(Benjamin Constant: 1767-1830)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대인들은 한 국가 내의 모든 시민들에게 권력이 분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것을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했다. ... 집단적인 권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형성 가능하였던 고대인들의 자유를 오늘날의 우리들이 누린다는 것은 더는 가능하지 않다. 그 반대로 우리들의 자유는 사적 독립을 평화롭게 추구하는 가운데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노르베르트 보비오(1999) 12-13쪽에서 재인용)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때에도 시민 대중을 이끄는 정치가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당시 정치가는 대중 앞에서 말로 연설하는 사람, 즉 레토르(rhetor, 라틴어로는 오라토르orator)로 불렸다. 이들을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rhetorike)이라는 제목의 강의록을 통해 다양한 설득의 기술을 가르쳤다(아리스토텔레스, 2017).



정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필요했지만, 그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사학이라는 ‘정치적 기술’ 내지 ‘정치 실천론’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사학은 (사사로운 대화나 사적 언어가 아닌) ‘공적인 언어(rhe)’를 ‘말하는 사람(tor)’이 ‘발휘해야 할 실력과 솜씨(ike)’를 함양하는 일에 대한 것이자, 학자보다는 정치가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을 이끄는 수사학적 요소를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로 구분했다.

로고스란 연설 ‘내용’(contents)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성을 가리킨다. 파토스는 듣는 이(hearers)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와 공유할 수 있는 삶의 경험(life experience)을 뜻한다. 그에 비해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speaker)의 인격(character), 권위(authority), 신뢰(trust)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가장 중시했다.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없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수사학의 도움 없이 정치가가 민주주의를 이끌기는 어렵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수사학을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플라톤의 책 『고르기아스』가 대표적이다(플라톤 2014). 그곳에서 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고르기아스는 ‘설득의 능력’이라 답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설득은 참된 진리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일’이자 ‘쾌락에 봉사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수사학이야말로 “행해진 불의 가운데 가장 큰 불의”라고 결론 내린다. 시민 대중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에 의존하는 민주 정치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얼마나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지, 나아가서는 그것을 일종의 ‘대

증에 대한 기만'에 불과한 일로 보았음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우려처럼 수사학이 기만적 설득 기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수사학의 도움 없이 민주 정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설령 말과 수사가 거짓됨을 감출 수도 있고, 숨은 계획이나 전략적 의도를 갖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신이 아니고 천사가 아닌 한 좋은 정치는 그런 인간적 한계와 위험 속에서 실천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수사학이 아니라 수사학을 잘못 사용하는 데 있다.

로마 공화정에서도 정치가들은 연설하는 법, 즉 공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키케로의 스승이자 살아있는 동안 '최고의 학덕'으로 불렸던 크라수스에 따르면, 당시의 수사학교는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혀의 훈련만 제공하고 뽀뽀함을 키우는 수사학교이다. 또 다른 수사학교는 "사람 만드는 교육 혹은 인간이 되게 하는데 가치 있는 학식"을 가르치는 수사학교가 있다. 이 후자의 수사학 전통을 꽃피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키케로다.

키케로가 저술한 연설가(orator) 관련 여러 저서들은 당시 대표적인 교재였다.⁵⁾ 이 책들을 통해 키케로는 설득의 효과를 높이는 기법만이 아니라 철학적 주제를 통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완벽한 연설(orator perfectus)'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의 죽음마저도 '비극적 장엄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당시 제정으로의 움직임은 주도했던 안토니우스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나이 64세에 그는 연설문을 작성했던 두 손과 함께 목이 잘려 광장에 전시되었다. 한때 카이사르는 키케로 책을 몰래 보던 한 젊은이와 부딪혔을 때 얼른 책을 숨기려는 그를 괜찮다고 제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참 연설을 잘 하시던 분이었지. 이보게 젊은이, 그 분은 참 연설을 잘 하시던 분이었어.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시던 분이었다네."⁶⁾

키케로가 수사학과 철학의 결합을 중시했다면, 로마 제정 초기에 활동했던 퀸틸리아누스는 수사학과 도덕의 결합을 중시했다. 수사학 학교의 교장을 지냈던 그는 로마 공화국에서 번성했던 수사학을 복원하려 노력하면서, "어떻게 이전 시대에는 재능이 있고

5) 국내에서 출간된 키케로의 대표적인 수사학 관련 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2006)가 있다. 라틴어 원제는 'Partitiones oratoriae'다.

6) 안재원,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2006)의 해제, 48쪽에서 재인용.

명성이 자자한 탁월한 연설가들이 그리도 많았던 반면, 우리 시대는 웅변의 영광이 이리도 허망하고 피폐하여 연설가라는 이름조차 거의 남지 않았는가.”라고 개탄했다.⁷⁾ 그러면서 늘 말하는 사람의 도덕적 기초를 강조함으로써, 진리나 진실과 무관하게 뒤편 믿게 만드는 무규범적 테크닉이 정당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나아가 수사학에 대한 철학자들의 우월감에 대항해 수사학의 도덕적 기초를 세우려 했다. 그가 내세운 교육목표를 보면, “우리는 완벽한 연설가를 만들려고 한다. 완벽한 연설가란 무엇보다 먼저 훌륭한 사람(vir bonus)이어야 한다(Marcus Fabius Quintilianus 2014).” 그런 의미에서 수사학을 ‘화려한 표현이나 미사여구(eloquence)’ 혹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화술(sophism)’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 삶에서 정치 행위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폄훼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7) 박준혁(2016, 274)에서 재인용.

제3절

민주주의자의 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민주화 이전의 민주적 실천과 민주화 이후의 민주적 실천은 다르다. 민주화 이전, 즉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라면 민주주의자는 정치 밖에서 체제와 싸우고 저항하는 사람들 일 것이다. 정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체제를 민주주의자가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권위주의 시기에는 어느 정도 거친 말과 전투적 실천이 관용될 수 있었다.

민주화 이후는 다르다.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정치체제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라면 정치체제 안에서 일하는 법을 아는 사람 혹은 그것을 익혀가는 사람이 민주주의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자라면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함을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민주주의자는 체제의 전복자가 아니라 체제의 공동 운영자이다. 이제 ‘만년 야당’도 ‘영원한 집권당’도 없다. 민주주의란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되고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되는 체제”를 뜻한다. 한마디로 “야당도 집권하는 체제”가 아니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렇기에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자들의 유능함은 그간 소외되었던 목소리, 집단, 이익, 갈등을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대표해 법과 공공정책의 내용에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정치 밖에서 정치와 싸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에 참여해 사회적인 요구를 균형 있게 투입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고 나아가 유능하게 통치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민주주의 하에서라면, 정치가나 정당이 제아무리 다르고 차이가 있다 해도, 협력해야 할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은 있게 마련이다. 민주주의가 시민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공통의 기반 위에서 정치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모두의 가치이며, 폭력과 질병이 많아지는 사회를 반기는 사람은 없다. 진보도 성장과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며, 보수 역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좌든 우든, 발전주의자든 생태주의자든, 시장주의자든 사

회주의자들 좀 더 자유롭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과 관련해,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러한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크지 않다. 설령 이견과 갈등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공통의 기반을 확대해가게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다. 따라서 잘못된 말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차 화해 불가능한 의제로 만드는 것은 정치의 기능을 파괴하는 일이 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자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도, 지켜질 수도 없다. 따라서 민주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말의 책임성은 준수되어야 한다.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정치 언어는 인간 사회를 자연 상태(state of nature) 내지 정신적 내전(civil war)으로 이끄는 파괴적인 역할을 한다. 상대방에 대한 야유와 조롱, 모욕의 정치 언어도 다르지 않다. 그런 말과 태도가 만들어 내는 도덕적 악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상대 진영에 대해 누가 더 잘 모욕할 수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증상(calumny) 정치, 반면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상대의 잘못을 누가 더 잘 고자질할 수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아첨(flattery) 정치가 지배하면 민주주의는 '나쁜 말의 경쟁 체제' 이상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민주주의는 그 장점을 잃고 귀족정이나 군주정보다 못한 정치 체제로 퇴락하게 된다는 것을 고대 정치철학자들은 입을 모아 경고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말하기의 규칙과 규범이 존중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다. 상대 정당이나 상대 파당과의 경쟁과 합의를 위해서는 성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대화가 필요한데,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는 대신, 돌아서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SNS 정치나, 서로를 모욕 주기 위해 여론을 동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견(異見)을 이적(利敵)으로 취급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인들 사이에 민주정치를 함께 운영한다는 동료 의식이 없다면, 정치의 인간미 없는 상호 파괴(mutual destruction)의 장이 되고 만다. 그러면 정치만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과 사회를 분열과 상처로 고통받게 만든다.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실한 준비, 합리적 대화, 차이에 대한 존중, 책임 있는 합의가 당연한 행위 규범이 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자멸할 수 있다.

제4절 국회에서의 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현대 민주주의 제도 가운데 하나인 의회(parliament)라는 용어 역시 말 혹은 대화를 뜻하는 고대 불어 'parler'에서 왔다(버나드 마넝 2004). 인간이 만든 제도나 기관 가운데 의회만이 복수의 적대 세력에 의해 운영된다. 서로 다른 '이념과 집단 이익'이 다투고 경합하는 것을 기관 운영의 원리로 삼는 특별한 제도가 의회다. 이 점에서 하나의 조직 원리나 위계적 구조로 움직이는 관료제나 기업, 학교, 교회 등 다른 제도나 기관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의회 없이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적대나 갈등을 다룰 수 없다는 데 있다. 의회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자들이 발견한 최고의 '평화 기획'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비밀은 사회적 적대를 '정치적 말싸움'으로 바꿔낸 데 있다.

그런 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말의 다원주의', 즉 갈등과 차이가 공존할 수 있도록 규범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료제처럼 일원적 원리나 위계 구조로 작동하는 곳이라면 제도나 규칙을 바꿔 일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제도나 규칙을 자주 바꿀 수 없는 곳이 의회다. 기관의 구조와 체계는 수평적이고 이를 적대하는 복수 세력이 같이 움직여가야만 작동하는 독특한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인간 조직보다 제도나 규칙보다 운영의 묘가 중요하고, 수평적 상호 작용을 이끄는 말과 행위 규범이 중요한 곳이 의회다.

그간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국회 제도를 바꾸고 규칙을 새롭게 정하려는 목적의 위원회 조직을 가동해왔다. 국회 개혁을 위한 제도 대안의 모색과 제안도 계속되었다. 그러는 사이 국회 내 말과 행위는 더 나빠져만 갔다. 의회 정치를 이끄는 말과 행위의 규범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사례도 없었고, 그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정치 지도자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최근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으로 주목을 받은,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지적은 가치가 있다.

그들에 따르면 미국 민주주의가 잘 작동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치세력들이

제도적 권한과 규칙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절제한 것에 있었다. 대신 정치세력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의 방법을 찾고 모색해 갔던 비제도적 규범이 작동했다.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로 이루어진 이런 규범을 그들은 연성 가드레일(soft guard rail)이라 불렀다. 제도나 규칙 같은 고정된 경성 가드레일이 아니라, 비제도적 행위 규범이 만들어지고 작동해야 민주주의 정치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렛 2018).

지금처럼 무규범의 말과 행위가 지속되는 한, 동시에 서로 우위를 점하려는 제도 투쟁(institutional combat)만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국회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설득력을 갖춰 논의하는 시민 정치가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의회에서 정치인들의 말과 행위가 좋지 않다면 시민이 공론장으로부터 상처받고 '광장'을 떠나 '가련한 빈집'에 갇히는 운명을 피할 방법은 없다.

제5절

수사학 : 공적 언어의 사용 방법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수사학은 가장 오래된 학문 가운데 하나다. 가장 오래되었다? 게다가 학문이다? 아마 이 대목을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분명 수사학은 기법과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하지만 옛 철학자들은 그런 수사학적 기예를 중시했다. 말의 힘을 실천할 수 있어야 공적 영역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에 그런 기법/기술/솜씨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학이란 주어진 상황과 주제를 이해하는 것에 바탕을 두되, 그에 맞도록 실제 연설을 효과적으로 운용, 조절하는 능력을 다룬다. 무엇을 말할 것인지(what to say)와 어떻게 말할 것인지(how to say)를, 연설의 상황과 연설을 듣는 청중의 기대에 맞게 결합하는 능력, 이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치가는 연설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쌓는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수사학은 철학적 깊이와 윤리적 결단을 말로 실천하는 일이지, 단순한 ‘말 잘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사학이 철학인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학은 “거부할 수 없는 낱말의 매력”을 구현하는 기술이며, 그 자체로 인간을 타락시킬 수도 있고 또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능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수사학 자체의 특별함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 적지가 않다.

1 그리스의 전통

수사학은 ‘설득의 능력’을 키우는 기술이고, 체계적인 지식이나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과 달리 ‘의견의 문제’를 다룬다. 의견은 기본적으로 개연성에 기초를 둔다.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입증보다는 일반적 개연성이 수사학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논리학과도 구분된다. 논리학이 ‘엄격한 인과적 논증’을 다룬다

면, 수사학은 낱말들을 가지고 청중들을 민도록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실보다는 '진실 같은 것', 과학적이고 절대적인 판단보다는 주관적 공감과 동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수사학에서는 더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수사학은 듣는 상대가 있고, 그 상대와 과학적 논증의 절차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주관적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점에서 수사학은 어떤 학문 분야보다도 상호적이고 또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진실인 것과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에는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 연설의 목적에 대한 헌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듣는 청중이 그에게서 신뢰와 권위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상황을 개선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적 과업에 대한 자각이 없는 정치가와는 수사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비싼 연설 강사로 알려진, 대표적인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정의한 것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감각은 주관적으로 다르고 진리는 상대적이기에, 말과 연설로써 공적인 결정을 이끌려 한다면 그만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탁월한 덕성을 위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타고라스의 수사학 교육을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수사학이 주관적인 감정의 이입을 다루고 있기에 문학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반대로 문학도 수사학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르기아스가 대표적이다. 그의 웅변술 내지 수사학은 문학적 즐거움을 구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적 환상을 자유롭게 구사한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그렇기에 그는 사형 선고조차 막을 수 있는 '감정의 수사학자'이자, 이를 통해 마술적인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웅변술의 대가로도 불리곤 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고르기아스는 물론 수사학 자체에 대해 매우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플라톤, 2014).

플라톤에 따르면 수사학은 책략 내지 전략적 수완을 발휘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실을 저버리고 대중에 아첨하는 행위 내지 청중에 아부하고 유혹하는 속임수라고 보기도 했다. 그래서 플라톤은 진정한 기예는 사고의 계발을 통해 이루어질 뿐 낱말을 이용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낱말의 수사학적 조합은 권력의 남용만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나아

가 선을 실현하고 불의와 악을 거부하는 것은 수사학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보았기에, 호메로스의 신화에서 보듯 동물적 본능이나 충동과 같은 원시적 인간성은 물론 수사학적 기교를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철학자가 통치하는 ‘지식의 왕국’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플라톤이 지향했던 ‘철학의 전제정’에 대한 수사학의 반격은 이소크라테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플라톤이 철학적 ‘지식’보다 열등한 것으로 비판했던 ‘의견’은 물론 의견에 기초를 둔 수사학의 가치를 옹호했다. 수사학을 속임수라고 본 플라톤과는 달리 수사학이야말로 인간의 덕성을 중시하고 인격 형성에서 철학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수사학에 교육적인 측면은 물론 미학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했으며, 그것은 곧 대중에 대한 아첨이나 아부가 아니라 ‘정치적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고 여겼다. 그런 의미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이 “정치적이되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한 것은⁸⁾ 이소크라테스 수사학의 정수를 잘 표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수사학을 체계화하고 분석적으로 논의한 최초의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에 앞선 그리스 수사학자들의 논의는 다른 사람들의 저작을 통해 그 편린만을 볼 수 있었던 때였다. 그들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성된 체계의 수사학을 독립된 저서로 남겼다(아리스토텔레스 2017). 그는 스승인 플라톤과 달리 수사학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당당한 학문의 반열에 올려놓는 작업을 했다. 의견을 ‘진리의 왜곡된 그림자’로 본 플라톤과는 달리, 의견이야말로 ‘진리의 진정한 형상’이라 정의한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였다. 나아가 연설을 의미의 차원과 형태적 차원으로 나누고, 후자의 형태적 차원에 대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도 했다.

수사학이란 “경우마다 설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지식”으로서, 이는 다른 어떤 기에도 대신할 수 없다고 본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였다. 따라서 어휘와 낱말 선택의 순간에 윤리적 전제들과 함께 정치적 가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위에서 쉽게 읽히고 정확히 발음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표현 형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은유와 운율, 목소리와 몸짓, 암기술(暗記術)을 수사학 요소의 하나로 평

8) 박상훈(2015) 6장 참조. 토니 모리슨은 흑인 여성의 관점에서 인종 차별과 노예제 문제가 가진 비극성을 “시적인 함축과 도덕적인 아름다움”의 힘으로 표현해 낸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다. 비판적이지만 상업적 성공도 누렸던 드문 작가이기도 했던 그는 얼마 전인 2019년 8월 5일에 세상을 떠났다.

가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후 수사학의 풍부한 발전에 길을 터준 철학자이자 정치학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2 로마의 전통

로마 공화정을 이끌었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진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계승한 후예였다. 그 역시 학문과 웅변, 지식과 언어는 수사학이 가져야 할 불가분의 두 측면이라 여겼다. 그러면서 레스(res, 사실/내용)와 베르바(verba, 말/표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여겼다. ‘말의 저울’(pondus verbi)이란 멋진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언어를 직업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가와 변론가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말했다. 논리학자가 가진 예리한 분석력, 철학자가 가진 심오한 사고력, 시인이 가진 언어 구사력, 법률가가 가진 암기력, 연극배우가 가진 우렁찬 목소리, 뛰어난 배우가 가진 표현력 등이 대표적이다. 키케로는 이런 다양한 분야의 탁월함을 모방하고 종합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그리스의 수사학 전통을 로마화한 것은 분명 키케로였다. 더 나아가 수사학을 인문학의 대표적인 과목으로 격상시키고, 수사학적 기법에 대해 정교한 논의를 발전시킨 것도 키케로였다.

로마의 수사학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사람은 퀸틸리아누스였다. 그는 수사학 학교의 교장으로 역임하면서 로마 수사학자 가운데 최고의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다. 체계적인 수사학 교재를 만들기 위해 교육 일선에서 은퇴한 사람이기도 했다. 교사들을 위한 수사학 교육 계획서를 발전시킨 사람은 단연 퀸틸리아누스였다. 그의 수사학 교육론이 남긴 가장 큰 기여는 도덕적 기초를 강조한 데 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하거나 희극적 요소를 과장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에토스⁹⁾와 관련해 소박함이나 수수함을 중시했다.

그렇지만 그는 파토스¹⁰⁾의 활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9) 에토스(ethos)란 ‘성격’이나 ‘관습’ 등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 고유의 성품을 뜻하는 수사학적 용어로 발전했다. 체형과 자세, 옷차림, 목소리, 단어선택, 시선 등에서 느껴지는 신뢰, 성실함, 카리스마 등이 에토스에 속하는데, 오늘날에는 민족이나 부족의 관습 내지 고유한 특징을 지칭하는 ethnic, ethnicity 등의 의미로 발전했다.

10) 파토스(pathos)란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고통’ 혹은 ‘고통에 대한 공통의 경험’의 의미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영어 발음으로 ‘페이소스’라고 하기도 한다. 은유와 비유는 물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등의 방

있다. 말하는 사람이 가진 도덕적 신념 위에서 수사학적 기법이나 표현 기술이 발휘되고, 나아가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능숙함과 청중을 움직이는 심리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려 노력한 것도 퀸틸리아누스였다. 따라서 그의 수사학은 “좋은 사람이 훌륭하게 말한다.”는 테제와 “말을 잘하는 것은 과학이다.”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테제를 결합한 내용을 가졌다. 요컨대, 가르치고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수사학의 3대 목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윤리적 목적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퀸틸리아누스 수사학의 정수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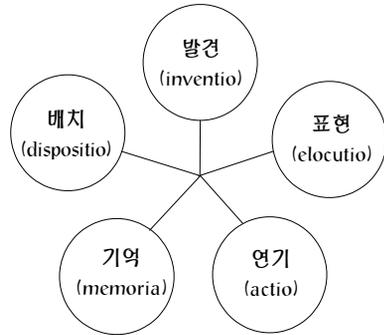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정의 쇠퇴는 곧 수사학의 쇠퇴를 가져왔다. 이어진 제정의 수립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수사학의 폐지에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는 “말 잘하면 빨갱이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공화정이나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두려워한다는 데 있다.

로마 제정 시기 수사학 교육은 낭송법의 기교 정도로 협소화되었다. 수사학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내용이 거세된 추상적 이론 정도로 축소된 내용을 가졌다. 우리의 삶을 위한 수사학 내지 인간다운 공동체를 위한 수사학은 사라졌고,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한 형식으로만 남았다는 뜻이다. 그 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거치며 공화정이 복원되자 수사학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키케로와 퀸틸리아누스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퀸틸리아누스의 책, <수사학 강론>이 15세기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키케로의 수사학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

법으로 듣는 이에게 전달되는 총체적인 감정과 열정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이지적인 것을 뜻하는 로고스(logos)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다.

3 키케로가 말하는 연설의 5요소

키케로는 이상적 연설가란 연설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설가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발견(inventio)이다. 연설의 주제나 내용에서 새로움이 없다면 연설의 기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다른 누가 아닌 자신만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함’을 생각해내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배치(dispositio)다. 내용과 주제 면에서 자신만이 발견한 것을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것은 물론 중요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치하지 못하면 산만한 내용 전달을 피할 수가 없다.

셋째는 표현(elocutio)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가운데 제3권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로부터 현대 수사학에 이르기까지 표현법에 대해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직유(simile), 은유(metaphor), 환유(metonymy)는 물론, 인용과 질문, 대조(antithesis)와 도치(inversion), 반복(repetition)과 점진적 고조(climax), 반어법(irony)과 완곡법(circumlocution), 수사적 찬탄(exclamation)과 카타르시스 등이 주로 언급되는 표현의 구성 요소들이다.

넷째는 기억(memoria)이다. 오늘날에는 프롬프터나 인쇄물을 들고 읽기에 바쁜 연설가들이 많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억에 넣어 두지 않는 한 잘 읽기도 힘들다. 단순 암기만으로 기억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장악하는 힘에 있다. 주제를 지배하는 정치가의 실력이야말로 기억과 암기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다섯째는 연기(actio)다. 현실의 정치인 시인 ‘관객’과 정치인 ‘배우’가 연출하는 ‘극장’과 유사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연설의 모든 요소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무대로 올라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좋은 목소리와 인상적인 표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인격성을 진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

도 키워야 할 것이다. 대중적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위업은 물론 대중적 매력까지 겸비한 정치가는 타고나기도 하지만 연기를 통해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면도 적지 않다.

이런 수사학의 여러 요소를 익히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 연설의 사례를 찾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했던 위대한 인물들의 정치 연설을 읽는 것은 가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수사학의 방법론은 늘 모방, 즉 앞서 좋은 선례를 따르는 것에 있었다. 이는 마키아벨리에게서도 강조되는 덕목이다. 마키아벨리는 신의 변덕이나 운명의 가변성에 희생되는 정치가 아닌, 인간의 적극적 의지와 실천으로 정치를 이끌어야 함을 설파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책 『군주론』 14장에서, 좋은 정치가로 성장하려면 위대한 인물의 풍모, 즉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르고 모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훈련을 통해 체력을 단련함으로써 역경 속에서도 의지가 꺾이지 않아야 함은 물론, 앞선 정치가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거칠게 다뤄질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또 역사 공부를 위해서는 전범이 될만한 정치 연설을 읽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좋은 연설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갈등 구조와 무관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치적인 가치를 지니는 연설이 우연히 누군가의 즉흥적인 생각에서 거저 나오는 법은 없다.

좋은 연설은 정치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해 준다.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좋은 연설은 어렵다. 좋은 정치 연설을 찾아 읽고 응용하는 일이 매우 큰 교육적 효과를 낳는 것은 그 때문이다. 좋은 정치 연설에는 반드시 앞선 모델이 있고 변형된 후속 모델들이 있다. 따라서 정치가로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꾸준히 정치 연설을 읽고 응용해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마키아벨리의 권고에 따라 시민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좋은 풍모를 갖추고자 애쓰고 또 노력해야 할 텐데, 다음의 제2장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에서 시작해 린든 존슨의 민권법 관련 연설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연설을 만나볼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한다.

끝으로 본문에서 다루지는 정치 연설의 원문은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설문과 함께,¹¹⁾ 수사학의 가치를 갖는 정치 연설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American

rhetoric'을¹²⁾ 활용했음을 밝혀 둔다. 그리스 원문에 대한 영문, 국문 해석의 여러 판본이 있는 페리클레스 연설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대한 대표적인 영문, 국문 원서를 참고했다.¹³⁾

11) <https://www.loc.gov/search/?fa=subject:speeches,+addresses,+etc>

12) <https://www.americanrhetoric.com/newtop100speeches.htm>

13) 영문 원서는 다음과 같다. Thucydides(Tomas Hobbes Trans. 1628) ; Thucydides(Henry Dale Trans. 1849) ; Thucydides(William Jennings Bryan Trans. 1906) ; Thucydides(Rex Warner Trans. 2000) ; Thucydides(Richard Cr awley Trans. 2004 참고와 대비를 위해 사용한 한글판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투키디데스(2011) / 페리클레스·뤼시아 스·이소크라테스·데모스테네스(2015)

제2장

정치 연설의 고전

제1절 우리는 민주주의자다 : 페리클레스

제2절 은밀한 정치 기획 : 에이브러햄 링컨

제3절 전쟁은 웃으며 하는 거다 : 윈스턴 처칠

제 1절

우리는 민주주의자다 : 페리클레스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아테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연설

동양의 정치 전통은 말보다는 글에 더 친화적이다. 글을 읽을 수 없는 다수 대중이 정치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없었다. 민주정이나 공화정처럼 시민 대중의 지지에 호소하는 정치체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말마따나 “정치의 고향은 민주정(공화정)”이라는 사실은 몹시 중요하다.

2천5백 년 전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화와 강의에 기원을 두고 있는, 철학과 정치학이라는 학문 역시, 일반 시민 대중의 주권적 결정에 의존하는 정치체제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 플라톤이 얼마나 비판적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온정적이었는지 등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들이 서양 정치철학의 원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체제가 민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아테네 민주정은 정치 언어의 역사에 있어 가장 풍부한 보물 창고를 우리에게 남겼다.

당시를 대표하는 누군가의 정치 연설을 꼽으라면 단연 페리클레스의 연설이다. 기원전 431년 혹은 430년 겨울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장례 연설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기록 덕분에 잊히지 않고 살아남았다. 스파르타(정식 명칭은 라케다이몬)와의 전쟁에서 희생된 전몰자를 추념하는 이 장례식은, 마지막 순서로 아테네를 대표하는 시민의 연설을 듣는 관례를 따랐다. 전쟁에서는 장군 즉, 시민 총사령관이었고, 정치에서는 ‘제1시민’(the first citizen of Athens), 즉 민주정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가 마지막 연사로 나섰다.

긴 연설이었지만 상투적인 표현도, 듣기 좋은 말이나 아첨도 없었다. 전몰자들의 희생을 두고 누구 때문이라며 탓하고 비난하는 내용도 없었다. 그보다는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지킬 만한 소중한 것이 있고, 남은 자들 역시 그런 순간이 오면 같은 선택을 해야

할 ‘이유’를 부각하려 했다. 그 이유야말로 이 전쟁에서 아테네 인들이 보여 준 위대함인데, 이는 군사적인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과 시민적 자유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에서 발원한 것임을 이보다 더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전몰자들이 이미 행동으로 보여 준 용기와 위대함을 어느 한 개인의 연설에 맡겨 평가하는 무모한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격조 있는 유머로 시작해 “자, 이제 각자 연고가 있는 전몰자들에 대한 애통함은 충분히 풀었으니 모두 이곳을 떠나시라.”로 끝날 때까지, 그가 말한 연설의 내용은, 슬프고도 당당하다. 무엇이 페리클레스에게 판에 박힌 위로나 듣기 좋은 연설이 아닌, 언제 읽어도 가슴이 저릴 정도로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연설을 하게 만들었을까?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따르면,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지나치게 긴 얼굴을 감추고 자 늘 투구를 썼을 만큼 인간적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생전에 자신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야 했을 만큼 인생의 아픔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도시국가를 사랑하고 자신의 시민들을 신뢰했던 정치가였다. 비극과 불행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려는 겁쟁이가 아니라,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용기 있게 견지한 인간이었다. 이 연설을 마친 이듬해 페리클레스도 죽음의 운명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정치 연설의 고전’으로 남았다. 정치 연설의 교과서가 있다면 단연 이 연설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

2 연설의 주요 내용과 설명

연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앞서 이 연단에 섰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례 행사의 마지막 막을 추도 연설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만든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곤 했다. 연설을 통해 전몰자들을 명예롭게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겼던 모양이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처럼 첫 단락부터 연설자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개성적 힘을 드러낸다. 아마도 말의 권위를 스스로 자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과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그의 인격

성(character)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이 부분이야말로 에토스의 전형적 특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좋은 연설이라 해서 꼭 에토스적인 요소를 앞세우고 부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을 272자로 줄인 연설”이라는 별칭을 가진 링컨의 게티즈버그 추도 연설은 일인칭 ‘나’(I, me, my)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에토스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지만 또 하나의 위대한 연설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페리클레스 연설은 모든 말이 대비되는 짝을 갖는다는 ‘그리스적 대조법’도 잘 보여준다. 앞서 연설했던 대다수의 사람들과 지금 연설하는 나를 대조하는 것도 그렇지만, ‘행동’과 ‘말’을 대조하는 문장도 그렇다. “그들의 명예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듯, 우리 도시국가가 마련한 장례 행사처럼 행동으로 칭송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상 말로 표현할 것까지 있나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후에도 선조와 후대, 과거와 현재, 모방과 본보기, 군사훈련과 자유로운 삶 등 대조법적인 표현은 끝도 없이 계속된다. (그리스적 대조법과 수사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어지는 문장을 보자. “완벽하게 균형 잡힌 연설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죽은 사람과 친했거나 호의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연설이, 말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나 죽은 사람에 관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비해 뭔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죽은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서 연설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남들에 대한 찬사란,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선까지만 용납되고, 그 이상은 시기와 불신을 낳기 때문이다.”

똑같은 주장도 유형론을 사용해 설명할 때 설득력은 커진다. 즉 “죽은 사람과 친했거나 호의를 가졌던 사람”과 “죽은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심리 상황을 나눠 본 뒤, 그 가운데 어느 쪽을 보더라도 자신의 연설이 환영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뒷받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이란 본래 그런 존재론적 한계를 가졌다는 진술도 자신의 논리적 판단을 강화한다. 하지만 서둘러 이 문제를 마무리한다. “그렇기는 해도 옛사람들이 이런 관습을 좋은 법으로 인정한 이상, 그 법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희망을 표현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나의 의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자, 일종의 ‘화제를 전환하는 솜씨’라고도 할 수 있다.

‘효과’나 ‘사실성’보다 법에 따라야 하는 자신의 ‘책임성’을 더 중요한 윤리적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야말로 누구도 반론하기 어려운 ‘정치적 논변’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부분은 “이 도시국가를 세운 우리 선조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건국자(founder)에 대한 경의는 정치 연설의 가장 보편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를 ‘운명과 기억의 공동체’로 묶어준다. 그래서 많은 정치 연설이 과거사에 대한 해석이나 재해석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뒤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에 자신들의 피와 수고(blood and toil)를 덧붙여”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을 칭송하는데, 이 부분은 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했던 1940년 5월 13일 윈스턴 처칠 수상 의회 연설에서 다시 불러 들여져 유명해졌다. 처칠 연설의 제목도 “나는 피와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 드릴 게 없다(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로 이름 붙여졌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라며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건국자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마무리되는데, 과도하면 ‘관제 역사관’을 권위주의적으로 강요하는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주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칭송이다. 페리클레스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 우리의 정체(政體, Politeia, form of government)와 삶의 양식(way of life)이 무엇이었던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민주정이라는 정치체제의 장점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문화적 양상에 대해 정말로 아름답게 표현한다.

그 시작은 이렇다. “우리의 정체는 이웃 나라들의 제도를 흉내낸 것이 아니다. 이 사실부터 말하고 싶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 남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의 정체는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권력이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분쟁을 수습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군가를 공적 책임을 갖는 자리에 앉히고자 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그가 속한 계급이나 그가 가진 특권이 아니라 그가 보여 준 실질적 능력이다. 이 나라에 기여하는 한, 그 누구도 빈곤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무시당하는 일은 없다.”

이어지는 부분도 민주정과 그것이 기초를 두고 있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대한 예찬이다. “우리의 정치 생활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만큼 일상생활 역시 그러하다. 이웃이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즐긴다면 그것에 간섭하지 않는다. 실제로 해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감정을 상하게 할 험악한 얼굴로 대하지 않는다. 사생활에서는 우리는 서로 자유롭고 관용을 베풀다. 하지만 공적 업무에서는 법을 준수한다. 법은 깊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권위 있는 자리에 앉힌 자라면, 우리는 그에게 복종한다. 법 그 자체, 특히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준수한다. 위반하면 수치로 여기는 불문율에도 순순히 복종한다.” 이처럼 스스로 만든 법에 스스로 복종하는 자치의 원리, 자의적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원리에 대한 가장 고전적 진술은 물론이고, 세습이나 가문의 우월성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초 원리도 강조되었다.

이어지는 주제는 폐쇄적 국가관보다 세계 시민으로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가치가 인간을 더 용기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군사적 접근보다 정치적 접근이 왜 더 강한 국가를 만드는가에 대한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데 있다. 군사 안보적 국가관은 두려움 혹은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극적 심리와 쉽게 연결된다. 반면, 스스로 만든 정치체제를 지키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시민의 역할로 이어진다. 법 앞의 평등이나 민주주의와 같은 자유로운 삶의 양식은 군사적 방법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테네 시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을 옹호하는 자세는, 미국 독립 전쟁 직전 영국으로부터 비롯된 군사적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1775년 의회 연설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민주정에서의 삶의 양식을 언급한 부분을 보자.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에 빠지지 않는다.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유약하지 않다.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활동의 적절한 바탕으로 삼는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단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도시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도 정치 일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그저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곳 아테네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만이 정책에 대한 결정을 우리 스스로 내리거나 적절한 토의에 부친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나쁜 것은 결과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행동에

뛰어드는 것이다.”

가난과 부에 대한 페리클레스의 진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부는 좋은 활동의 기반이어야 하지 과시하거나 사치할 일이 아니라거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라는 논지야말로 이 연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삶의 양식에 대한 이상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전몰자에 대한 칭송이 이어진다.

그런데 잘 보면 그 근거는 개인 권리나 공리적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자유에 헌신하고 이를 위해 용기를 발휘하는 ‘인간 행위의 위대함과 고귀한 명예’에 대한 것이다. “나는 우리의 도시국가를 그리스의 학교(the school of Hellas)라고 감히 단언한다. 더욱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서 삶을 향유하면서 자신만의 능력을 영예롭게 키워 나가고 있다. 이 나라의 장례 행사 자리라고 해서 이렇듯 호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실제적 진실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우리의 자질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이 나라의 국력이 실증해 주고 있다. 여러 도시국가 가운데 시련을 통해 명성 이상의 힘을 보여 준 것은 오늘날 오직 우리뿐이다. ... 이토록 위대한 아테네를 위해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도시국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과감한 결단으로 고귀하게 싸우며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 까닭에 이 도시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여기 남은 우리에게도 의무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에는 이런 행동을 애국주의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등으로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아도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나 ‘동료 사회 구성원에 대한 헌신’과 같은 시민적 덕목 없이 민주주의가 튼튼한 사회문화적 기반 위에서 서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정치관 위에서 전몰자에 대한 추모나 칭송이 이어진다. “누군가의 공적과 그에 대한 예찬이 이곳에 묻힌 사람들처럼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예는 그리스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에서 시작해 살아남은 자의 의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이 도시국가에 어울리는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 살아남은 우리가 더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 역시 전장에 나서면 이들 못지않게 담대함을 보일 각오를 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용감하게 도시국가를 지키

는 것의 가치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되풀이해서 강조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을 경청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국가의 위대함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보면서 J. F. 케네디의 유명한 연설 문구, “그러므로 동료 미국 시민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길 바란다(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도시국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용기와 헌신은 위대하다는 이 부분이야말로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시민적 덕성의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인간 삶의 비극적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전체 연설문 가운데 인간 감정을 가장 깊게 다루는 부분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관점에서는 파토스적 요소가 짙게 깔려 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상실만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슬픔을 자각하지 않는 삶에 행복이 깃들 수도 없다. 누구든 죽는다. 그렇지만 삶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노력,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죽음으로부터 비겁하게 도망치려 하기보다 용기 있게 맞서는 일에 경의를 표하는 방식 등등, 그로부터 우리의 삶이 더더욱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인식의 새 지평을 얻을 수도 있다.

버락 오바마는 2011년 애리조나 주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에서 “갑작스런 이별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부모님께는 자주 감사함을 표현했는지,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했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다. 페리클레스의 연설 없이 오바마의 그런 연설이 가능했을까?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연설의 마지막을 보자.

“여기 잠든 전몰자들처럼, 영광으로 가득 찬 최후를 맞이하고, 여러분이 바치는 것과 같은 애도를 받으며, 그 파란만장했던 생애의 종말에서 충실했던 것이야말로 행복한 최후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설득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이 예전에 누렸던 기쁨을 오늘 이후로는 남들의 손에서 찾아야 할 때, 여러분은 수없이 슬픔을 느낄 것이다.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도 쓰라리지 않다. 고통은 오랫동안 익숙했던 행복을 상실하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자식에 대한 희망으로 견뎌야 한다. ...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 고통을 행복했던 인생이 요구하는 대가로 여기는 동시에, 슬퍼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위안 삼아 죽은 사람들의 명예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기 바란다.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늙지 않는다. 누군가도 말했듯이 은퇴할 나이가 된 사람은 사리사욕을 따르지 않고 존경받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 오늘 이후 미망인이 되는 분들에 대해 한마디 언급할 게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짧은 권고에 다 담겨 있다. 여러분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큰 명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명성은 좋게든 나쁘게든 남자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데 있다. 관습법에 따른 내 연설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은 다했다. 여기에 안치된 사람들의 영예를 위해 거행되어야 할 의식도 이미 마쳤다. 그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것은 도시국가가 책임진다. 이는 전몰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을 시련에 대해 나라가 해야 할 당연한 보상이다. 용기에 가장 큰 상을 주는 나라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용감한 시민들이 다스리는 곳이다. 자, 이제 각자 연고가 있는 전몰자들에 대한 애통함은 충분히 풀었으니, 모두 이곳을 떠나시라.”

위 내용 가운데 남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여성이 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대목은 페미니스트들의 비난을 받았다. 2천5백 년 전의 시대적 한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좋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노인들에게 삶의 고통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위안 삼으라 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른 부분도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냉정해 보일 수 있다. 반면 이처럼 당당하게 ‘가혹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경탄할 수도 있다.

각자마다 평가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실존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두려움 없는 진술’이라는 점에서는 놀랍게 여겨진다. 인간으로서 시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 그 나머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복지국가에 대한 고전적 관점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애통함과 회한을 모두 풀었으니, 이제 이 자리를 떠나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으로 용기를 갖고 돌아가자! 이런 선언이 야말로 진정한 통치자만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 한다.

정치사상가 셸던 윌린(Sheldon Wolin, 2007)은 마키아벨리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정치란 ‘도덕적 비애감’(moral pathos)을 뚫고 비상하는 인간 활동으로 정의한 적이 있는데, 페리클레스의 이 연설이야말로 이를 실증하는 정치 연설의 고전 가운데 고전이 아닐까 한다. 삶이 슬프게 여겨질 때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은 떠올릴만하다. 뭐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할 때, 남은 삶이 가치 있어 보이는 법이기 때문이다.

3 연설문 읽기

“앞서 이 연단에 섰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례 행사의 마지막을 추도 연설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만든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곤 했다. 연설을 통해 전몰자들을 명예롭게 해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겼던 모양이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전몰자들은 자신들이 칭송받을 만한 이유를 이미 행동을 통해 충분히 보여주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명예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듯, 우리 도시국가가 마련한 장례 행사처럼 행동으로 칭송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상 말로 표현할 것까지 있나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행동으로 보여 준 용기를,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연설에 맡겨져 그 사람의 서툴거나 뛰어난 연설로 평가받게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연설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죽은 사람과 친했거나 호의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연설이, 말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나 죽은 사람에 관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에 비해 뭔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죽은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서 연설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남들에 대한 찬사란,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선까지만 용납되고, 그 이상은 시기와 불신을 낳기 때문이

다. 그렇기는 해도 옛사람들이 이런 관습을 좋은 법으로 인정한 이상, 그 법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희망을 표현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나의 의무일 것이다.

나는 이 도시국가를 세운 우리 선조의 이야기로 연설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기회에 그들을 생각하며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올바르고 또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처음 이 땅을 차지해 살게 된 이후 그들은 용기를 발휘해 나라를 잃지 않고 지켜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유로운 도시국가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이 이런 칭송을 받을 만했다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더욱 칭송받아 마땅하다. 왜냐면 그들은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것에 자신들의 피와 수고(blood and toil)를 덧붙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단한 통치 체제를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그 뒤 오늘 여기 모인 우리의 나이든 시민들은 우리의 통치 체제를 가꾸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용기를 보여주었고, 전시킨 평시건 우리의 도시국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이 연설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선조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고, 이민족 내지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침공에 맞서 어떻게 싸웠는지 되풀이해 말하지 않겠다. 다만 어떠한 정신으로 우리가 직면한 역경을 헤쳐 왔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 우리의 정체(政體, Politeia, form of government)와 삶의 양식(way of life)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그런 뒤에 전물자들을 기리는 말을 하도록 하겠다. 이 연단에서 우리의 정체와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언급하는 일은 이 장례식에 제격일 뿐만 아니라, 아테네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여기 모인 모든 청중에게 유익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체는 이웃 나라들의 제도를 흉내낸 것이 아니다. 이 사실부터 말하고 싶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 남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리의 정체는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권력이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사적인 분쟁을 수습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군가를 공격 책임을 갖는 자리에 앉히고자 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그가 속한 계급이나 그가 가진 특권이 아니라 그가 보여 준 실질적 능력이다. 이 나라에 기여하는 한, 그 누구도 빈곤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무시당하는 일은 없다.

우리의 정치 생활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것만큼 일상생활 역시 그러하다. 이웃이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즐긴다면 그것에 간섭하지 않는다. 실제로 해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감정을 상하게 할 험악한 얼굴로 대하지 않는다. 사생활에서는 우리는 서로 자유롭게 관용을 베풀다. 하지만 공적 업무에서는 법을 준수한다. 법은 깊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권위 있는 자리에 앉힌 자라면, 우리는 그에게 복종한다. 법 그 자체, 특히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준수한다. 위반하면 수치로 여기는 불문율에도 순순히 복종한다.

중요한 사실이 또 있다. 하루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신 건강을 위해 모든 종류의 여가를 향유한다. 사계절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경기와 대회를 개최한다. 아름답고 유쾌한 개개인의 가정은 나날의 노고를 잊게 한다. 이 도시의 위대함 때문에 만물이 이 도시에 집결하고, 그래서 우리 아테네인은 세상의 산물을 마치 이 땅에서 난 것인 양 즐긴다.

우리의 군사정책도 적과는 다르다. 먼저 우리 도시국가는 온 세계에 개방적이다. 외국인을 추방함으로써 이방인의 견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설사 이 개방성 때문에 적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알아내 이익을 도모할지라도 장비나 책략보다 우리의 용기를 믿는다. 군사 교육에서도 적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엄격한 훈련으로 용기를 함양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살게 하면서도 그들에 맞서 조금도 밀리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라케다이몬인(스파르타인)은 단독으로 출병하지 않으며 모든 동맹군과 상의한 뒤에 우리의 영토로 출병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적에 맞서며, 다른 나라에서 싸울 때도 적을 어렵지 않게 제압한다.

어떤 적이든 한 번도 우리의 전군과 맞서 본 적이 없다. 우리는 해군을 증강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육군을 각지에 파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군의 일부와 교전해 승리를 얻으면 그 부분적인 승리를 가지고 우리 전체를 격파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격파당하면 우리의 전 세력에 정복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고된 훈련이나 엄격한 군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침착함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용기를 갖고 위협과 대면한다. 다가올 곤경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도 않는다. 전열에 서면 평소 휴식 없이 훈련에 시달렸던 자들보다 훨씬 용감하게 행동한다. 이상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도시가 전시든 평시든 다름없이 가히 경탄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에 빠지지 않는다. 지혜를 사랑하면서도 유

약하지 않다.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활동의 적절한 바탕으로 삼는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단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도시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도 정치 일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그저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곳 아테네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만이 정책에 대한 결정을 우리 스스로 내리거나 적절한 토의에 부친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나쁜 것은 결과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행동에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의 남다른 점은 또 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는 자세와 아울러 그것을 과감하게 단행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무지가 만용을 불러일으키고, 신중하게 생각한답시고 망설이는 태도로 일관한다. 삶의 공포도 환희도 잘 알고, 게다가 위협에 겁을 먹지 않는 자라야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대한 선행의 개념에서도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남들과는 달리 선한 일을 통해 우방을 만들지, 혜택을 바라고 우방을 만들지 않는다. 선행을 베푸는 측은 상대가 느끼는 고마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선의를 보임으로써 계속해서 더 큰 신뢰를 얻는다. 반면 의리상 은혜를 갚으려는 측은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고자 하는 의도로 그리하기 때문에 진심을 잃게 된다. 우방을 돕는 방법도 특별한데, 우리는 손익을 따져 돕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가치를 믿고 두려움 없이 돕는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나는 우리의 도시국가를 그리스의 학교(the school of Hellas)라고 감히 단언한다. 더욱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서 삶을 향유하면서 자신만의 능력을 영예롭게 키워나가고 있다. 이 나라의 장례 행사 자리라고 해서 이렇듯 호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실제적 진실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우리의 자질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이 나라의 국력이 실증해 주고 있다. 여러 도시국가 가운데 시련을 통해 명성 이상의 힘을 보여 준 것은 오늘날 오직 우리뿐이다. 우리에게 패한 적도 우리에게만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한을 품지

않으며, 우리를 따르는 속국도 우리 이외에 자신들이 의무를 다할 적합한 맹주는 없다고 믿고 있다.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그 힘을 보여 준 우리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경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뿐, 우리에게 호메로스의 찬가도, 잠시 귀를 즐겁게 하는 멋진 표현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용기 앞에 굴복한 온 바다와 육지는 길을 열어 우리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우방에게 베푼 선행으로, 그리고 적에게 가한 고통의 기억으로 세상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념비를 남겼다.

이토록 위대한 아테네를 위해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도시국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과감한 결단으로 고귀하게 싸우며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 까닭에 이 도시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여기 남은 우리에게도 의무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도시국가에 관해 이토록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와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자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야기할 전몰자들에 대한 칭송에 확실한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도시국가를 찬양함으로써 전몰자들을 칭송하는 주된 근거는 거의 모두 말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도시국가를 빛낸 것은 오로지 여기에 잠든 사람들의 용기와 용맹함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의 공적과 그에 대한 예찬이 이곳에 묻힌 사람들처럼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예는 그리스 어디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안식하게 될 사람들이 맞이해야 했던 최후는, 그것이 처음 참여한 전투였든 마지막이 된 전투였든,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탁월함을 보여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 가운데 인간적인 실수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싸운 무용이야말로 그 사람의 단점을 상쇄한다는 주장은 옳다. 선행은 악행을 덮어 주고, 개인으로서의 단점보다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그가 보인 용기가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누리지 못한 부의 쾌락을 아쉬워하며 기가 꺾이거나, 언젠가 부의 기쁨을 누릴지도 모르는데 하는 기대 때문에 죽음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적에게 복수하고자 했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내던질 만한 비길 데 없는 영광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며 적을 섬멸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해 이 결의가 성취되길 기원했던 것이다. 전운이 확실치 않음에도 희망을 걸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임무를 대담하게 수행해 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보았으며, 그리하여 뒤로 물러나 생명을 보존하기보다는 맞서 싸우다 죽기를 택했다. 불명예스러운 기회주의적 태도 대신 온몸을 바쳐 전열을 고수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도달한 절정의 그 순간 두려워하기보다는 영광스럽게 죽음과 마주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이 도시국가에 어울리는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 살아남은 우리가 더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 역시 전장에 나서면 이들 못지않게 담대함을 보일 각오를 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용감하게 도시국가를 지키는 것의 가치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되풀이해서 강조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을 경청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국가의 위대함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도시국가의 위대함을 느낄 때마다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 그러한 위대함은 전장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의무를 자각하며 비겁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 의해 획득된 것임을 말이다. 그들은 설령 시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하면서 가장 고귀한 헌신을 하겠다고 여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한 몸을 나라에 바쳐 더는 늙고 소멸할 수 없는 찬사와 영광을 최고의 무덤과 함께 얻었다. 지하에 묻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영예로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기념될 것이다. 온 땅은 이 대단한 사람들의 묘지가 되어, 모국에서 묘석의 비문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아무 관련이 없는 땅에서도 무형, 무언의 기념비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깃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 자유가 없는 곳에 행복이 없고, 용기가 없는 곳에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전쟁의 위험 앞에서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견지하지 못하는 비참한 자라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싸울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행운도 지나치면 악운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수하려는 사람들만이 생명을 걸고 행복을 지키려 한다. 금지 있는 인간은, 조국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홀연히 죽어 가는 것보다 겁을 내고 살면서 수치를 당하는 것에서 더 고통을 느낀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전몰자의 부모가 되는 여러분께 안타까운 애도의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 한다. 그보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세상이란 수많은 삶의 변천이 있는 곳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 그나마 여기 잠든 전몰자들처럼, 영광으로 가득 찬 최후를 맞이하고, 여러분이 바치는 것과 같은 애도를 받으며, 그 파란만장했던 생애의 종말에서 충실했던 것이야말로 행복한 최후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설득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이 예전에 누렸던 기쁨을 오늘 이후로는 남들의 손에서 찾아야 할 때, 여러분은 수없이 슬픔을 느낄 것이다.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도 쓰라리지 않다. 고통은 오랫동안 익숙했던 행복을 상실하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자식에 대한 희망으로 견뎌야 한다. 새로 태어날 자식들은 가정에서는 죽은 자를 잊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도시국가로서는 인구와 방위의 양 측면에서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내 자식의 생명을 나라에 바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공동체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운영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여러분 가운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 고통을 행복했던 인생이 요구하는 대가로 여기는 동시에, 슬퍼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위안 삼아 죽은 사람들의 명예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기 바란다.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늙지 않는다. 누군가도 말했듯이 은퇴할 나이가 된 사람은 사리사욕을 따르지 않고 존경받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여기에 모여 있는 전몰자의 형제나 유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칭송하는 것은 세상의 관습이다. 비록 여러분이 명예로운 행동을 했을지라도 죽은 사람만큼의 명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죽은 자들의 공적에 미치지 못한다고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두 경쟁심 때문에 서로를 질투하지만, 세상을 떠나 버린 사람에게서는 순순히 경의를 표하는 게 인간이다.

오늘 이후 미망인이 되는 분들에 대해 한마디 언급할 게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짧은 권고에 다 담겨 있다. 여러분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큰 명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명성은 좋게든 나쁘게든 남자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데 있다.

관습법에 따른 내 연설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은 다했다. 여기에 안치된 사람들의 영예를 위해 거행되어야 할 의식도 이미 마쳤다. 그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필요한 것은 도시국가가 책임진다. 이는 전몰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을 시련에 대해 나라가 해야 할 당연한 보상이다. 용기에 가장 큰 상을 주는 나라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용감한 시민들이 다스리는 곳이다. 자, 이제 각자 연고가 있는 전몰자들에 대한 애통함은 충분히 풀었으니, 모두 이곳을 떠나시라.”

제2절

은밀한 정치 기획 : 에이브러햄 링컨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게티즈버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 정도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 연설을 둘러싼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흥미롭고 풍부하다.¹⁴⁾

우선 왜 게티즈버그인가? 남북전쟁 당시 게티즈버그는 주민이 2천4백여 명밖에 되지 않던, 펜실베이니아 주의 작은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남북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1863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 동안의 전투에서 북부군은 승리를 거두며 전세를 역전시켰다. 하지만 양쪽 모두 피해가 너무 컸다. 사상자는 전사와 부상, 실종 및 포로 등을 합해 5만1천여 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 사망자만 거의 8천 명에 이르렀다.

전투가 끝났을 때 군대는 떠났지만 8천여 구의 시신과 5천여 필의 말 사체가 여기저기 흩어진 채 그대로 있었다. 매장하거나 소각해야 할 시신과 사체가 뜨거운 여름 날씨 아래 방치되어 주민들은 심한 악취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말의 사체는 곧 소각되었지만 사람의 시신은 그렇게 처리할 수 없었다. 급한 대로 가매장이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신원 확인을 포함해 거쳐야 할 절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부군 사망자와 신원 미상의 시신은 어떻게 할지, 유품 처리와 매장지 조성, 매장 방법, 엄청난 자원 마련은 또 어떻게 할지 등등 간단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14) 게티즈버그 연설을 전후한 상황에 대해서는, 게리 월스(2012) 참조.

7월 말,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에게 도착한 보고서는 전투가 끝난 지 3주가 지난 시점의 참혹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팔과 다리 그리고 때로는 머리도 땅 위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무엇보다도 돼지들이 땅속의 시체를 파내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고 있는 통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더는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데이비드 윌스라고 하는, 판사 출신의 존경받는 민간 지도자를 책임자로 임명해 기금 위원회를 만들어 매장과 장례를 준비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이후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전체 필요한 기금은 주별로 할당되었다. 국방부가 매장을 위한 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펜실베이니아 주는 7헥타르의 매장지를 기증했다. 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이 이루어졌고, 한 구당 1.59달러로 낙찰되었다. 그렇게 시작해 하루에 1백 구 정도의 시신을 처리한다면 그해 말 땅이 열기 전에 매장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일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시신의 신원 확인 등의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아, 그 이듬해 봄까지 매장이 계속되었다. 예정된 ‘국립묘지 헌정식’도 제때 열리지 못했다. 애초 헌정식은 10월 23일에 치를 계획이었다. 기도, 음악, 추모사(Oration), 헌사, 장송곡, 축도의 순서로 이어지는 헌정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추모사를 담당할 사람이 내정되고, 섭외를 위해 연락이 이루어진 날은 9월 23일이었다. 당시 가장 이름난 명연설가 에드워드 에버렛(Edward Everett)이 그 주인공이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과 상원의원을 지낸 정치가이자 주영국 대사를 지낸 외교관,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그리스 고전을 전공한 대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추모사를 준비하려면 전투에 대한 고증을 꼼꼼히 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때문에 헌정식은 애초 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늦춰진 1863년 11월 19일에 치러졌다. 전투가 끝난지 넉 달도 더 지난 시점이었다. 그때까지도 매장은 전체 시신의 3분의 1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처럼 3일간의 전투가 남긴 비극적 상처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헌정식이 치러진 것이다.

2 논란이 된 링컨의 연설

링컨이 헌정식에 초청을 받은 날은 10월 30일이었다. 연설자 에버렛에 비해 한 달도 더 지나서 섭외가 이루어진 것이며, 헌정식이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는 링컨이 헌정식 행사의 주인공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미합중국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 행사의 의의를 명확히 하는 몇 마디 헌사를 남겨 주기를” 바라는 정중한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

헌정식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 관료를 포함, 1만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들다 보니 행사는 혼잡을 피할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예정된 도착 시간을 지키지 못했고, 전날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숙박 시설이 부족해 앉은 채 밤을 보냈다. 링컨도 전날 출발했는데 기차 환승을 포함해 6시간이 걸렸다.

사연 많은 이 행사를 위해 에버렛은 매우 충실하고도 긴 연설문을 준비했다. 그의 연설은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많은 청중을 긴 시간 동안 집중시킬 만큼 명연설이었다. 언론들과 지식인들의 호평이 뒤따랐다. 링컨도 높이 평가했다. 반면 그의 뒤를 이어 연단에 오른 링컨의 연설은 3분도 되지 않았다. 글자 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링컨이 남긴 필사본도 여러 개이고 각자 조금씩 달랐으며, 현장에서 신문들이 속기사를 통해 받아 적어 지면에 실은 글자 수도 달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링컨 스스로 연설문을 손 글씨로 적어 기록에 남겼는데, 그러면서 신문에 실렸던 녹취 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때 모든 녹취 본에 들어 있는 “here(여기)”라는 단어 하나가 여러 번 중복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를 지움으로써 272자가 되었다. 링컨이 연설하는 장면을 담은, 제대로 된 사진 한 장이 없는데, 당시 신문들이 카메라를 준비하는 동안 연설이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아무튼 연설은 그렇게 끝이 났다. 평가는 어땠을까?

링컨과 공화당을 지지하던 신문들은 “향후 모든 정치 연설의 본보기가 될 정도로 명료한 생각을 표현했다.”며 매우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1백 년 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 연설에서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그림자를 남긴 한 사람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고 서두를 시작함으로써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오바마도 2009년 대통령 취임사 제목을 정하면서, 링컨의 계

티즈버그 연설 가운데 “자유의 새로운 탄생”(a new birth of freedom)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고, 그 밖에도 많은 정치가들이 자신의 연설에서 링컨의 연설을 칭송하거나 인용해 왔다.

하지만 당시 링컨은 다르게 생각한 것 같다. 연설 직후 “(질이 안 좋은 쟁기가 그렇듯) 사람들 마음에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며 자책하기도 했다. 주 연설자 에버렛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링컨은 자신의 연설이 “실패작”이었던 반면 에버렛의 연설은 대단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에버렛은 링컨의 연설을 칭송했다. 그는 “당신께서 2분 만에 하신 것처럼, 나의 2시간 연설 또한 곧바로 핵심에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언론의 평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에버렛의 연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칭찬 일색이었던 반면, 링컨의 연설은 의견이 갈렸다. 칭찬도 많았지만 비난하는 신문과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혹자는 “겨우 무례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말했고, 『시카고 타임스』 등 당시 민주당에 우호적인 신문들은 더 노골적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장교와 사병들이 게티즈버그에서 목숨을 바친 것은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함[인데] …… 그가 어찌하여 감히 그들의 무덤 위에 서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 간 원인을 허위로 떠들어 대고 이 정부를 세웠던 정치인(헌법 제정자)들을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와 같이 보도한, 『시카고 타임스』의 11월 23일 자가 대표적이다. “수호하기로 선서한 헌법을 위배”했다거나 교묘하게 “군중들의 정신을 소매치기”했다는 비난도 있었다. 헌법을 위배? 소매치기? 이게 무슨 뜻일까? 링컨의 짧은 연설문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지금으로부터 네 번의 20년 하고도 7년 전(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다. 그 나라는 자유 속에서 잉태되었고(conceived in Liberty),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헌신하고자(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e all men are created equal) 세워진 나라였다. (박수)

지금 우리는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세운 나라, 즉 자유 속에서 잉태되고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명제에 헌신하고자 세워진 어떤 한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이다. 이 자리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헌신했던 바로 그런 나라가 살아남기를 염원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안식처(the final resting place)가 될 수 있도록 싸움터의 땅 한 조각을 바치고자 우리는 여기에 왔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을 신성하고 고결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힘을 여기에 어떻게 보태고 뺄 것인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그들이 전사자든 생존자든, 그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수)

세상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감당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박수)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으로 남긴 일, 바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다. (박수)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 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바치고, (박수)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과 함께, 신의 가호 아래 태어난 이 나라에 새로운 자유의 탄생이 있게 할 것이며,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부가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는 일은 없게 할 것임을 바로 이곳에서 굳게굳게 다짐한다(we here highly resolve). (매우 긴 박수)”

3 헌법이나 독립선언문이나

속설이지만, 이 연설에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붙어 있다. 이 짧은 연설은 링컨이 게티즈버그로 가는 기차 안에서 편지 봉투 뒷면의 여백에 끄적거리듯 적어 내려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할 말을 메모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게티즈버그로 가는 길에 떠오른 즉흥적인 생각을 메모해 연설했다는 이야기는 실제 사실과 거리가 멀다. 링컨은 수도 워싱턴의 백악관에서부터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연설문을 준비했다. 게티즈버그에 도착한 뒤에도 다음 날 국립묘지 헌정식장으로 출발하

기 직전까지 자신의 숙소에서 연설문을 계속 고치고 손봤다. 이 짧은 연설문을 통해 링컨은 자신의 정치관을 확고히 보여주려고 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긴장시킬 만한 일을 꾸몄다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계속해서 밀리던 북부군이 겨우 승세를 얻었지만, 당시 상황은 여전히 나빴다. 징집에 반대하는 폭동도 일어났다. 전쟁을 멈추고 남부와 협상하지는 목소리도 커졌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재임을 해야 했던 링컨으로서는 이 연설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짧은 연설 속에 그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모두 담아야 했다. 링컨이 언제나 짧은 연설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문장을 다양하게 발췌해 몇 시간이라도 연설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높은 톤의 소리를 가진, 배우 같은 존재였다. 링컨은 마크 트웨인의 작품과 그 격을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미국적인 정치 산문의 전통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말로 그 느낌을 살려서 옮기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렇기에 지금껏 많은 이들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물론 지엽적인 문제나 주제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죽은 자를 칭송하는(laud)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산 자를 이끄는(lead)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해 왔다. 그런데 그가 그런 연설을 준비하면서 무슨 숨은 계획(hidden plan)을 가졌기에, 링컨을 비난하는 이들이 이 연설에 대해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공격했던 것일까? 청중들은 그 짧은 연설을 들으면서 다섯 번이나 박수로 호응하는 동안 무슨 정신을 소매치기 당하듯 빼앗기고 새로운 방향으로 교묘하게 이끌렸다는 것일까?

첫 문장, 첫 단어로 돌아가 보자. 우선 “지금으로부터 네 번의 20년 하고도 7년 전”은 연방헌법이 만들어진 때(1787년)가 아니다. 미국 정치 연설의 전통은 헌법의 권위를 불러오는 형식을 갖는데, 링컨은 그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을 불러왔고, 이어서 1776년의 독립선언서 가운데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부분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만인의 평등에 기초해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음을 말한 것인데, 이 부분은 적어도 링컨의 정치 경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858년 이래 7차에 걸쳐 진행된 ‘링컨-더글러스 논쟁’(Lincoln-Douglas Debates)을 살펴보아야 한다.¹⁵⁾ 당시 민주당 상원의원이었던

스티븐 더글러스는 ‘인민 주권’을 앞세워 노예제 허용 여부를 해당 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링컨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링컨의 입장은 “미주리 주의 남부 경계인 북위 36도 30분 이북에는 노예제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미주리 타협(Missouri Compromise)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더글러스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국에서 노예제는 북부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논쟁 과정에서 더글러스는 링컨을 노예제 폐지론자로 공격했다. 당시 분위기에서 노예제 폐지론자로 몰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적잖은 타격이 되었다. 이때 링컨을 공격하기 위해 더글러스가 부각한 논점 가운데 하나는, “링컨은 미국독립선언을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공격은 효과를 발휘했다. 링컨의 휘그당(뒤에 공화당) 안에서도 링컨이 노예제 폐지론자에 가깝다며 더글러스를 지지하는 세력이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해서 링컨은 흑인 노예를 포함해 모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백인과 흑인이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사실이었다. 미국 헌법 1조 2절 3항에는, 하원의원의 수를 인구 대비로 정할 때 노예가 차지하는 인구의 가치를 일반인의 5분의 3으로 계산하라는 규정이 있었다. 미국 헌법이 노예제 위에 세워진 공식 통치 문서인 사실을 부정하기란 어려운 시절이었다. 1857년 3월 7일에 있었던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흔히 ‘드레드 스코트 대 샌드퍼드’(Dred Scott v. Sandford)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노예로 미합중국에 들어온 흑인과 그 후손은 그가 노예이든 노예가 아니든 미국 헌법 아래 보호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이 될 수 없기에 연방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연방 정부가 미국 영토 내의 노예제도를 금지할 권리가 없으며, 정당한 법의 절차 없이 주인으로부터 노예를 빼앗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금 생각하면 경악할 일이지만, 당시는 그랬다.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링컨 지지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이에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노예제와 미국 헌법을 언급하는 내용은 없다. 다만 독립선언문의 내용 가운데 ‘평등한 만인’ 부분을 불러왔을 뿐이다. 그런데도 노예제의 존속을

15)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노예제가 갖는 결정적 의미에 대해서는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2018)을 참조할 것.

바라는 사람들이나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들은 노예제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정신과 더불어, 링컨 역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사실을 다시 강조하면서 깊은 의심의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미국 헌법이나 노예제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채워 넣은 가치에 있었다. 이는 미국 헌법에 없었던 가치였고,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 새롭게 조명된 가치였다. 그게 무엇일까?

4 그리스적 대조법의 복원

링컨의 이 연설이 “2천5백 년 전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을 3백 자 이내로 줄여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앞서(페리클레스의 연설을 다룬 전편에서) 언급한 바 있다. “도시국가를 세운 우리 선조들”과 그들이 물려준 “자유로운 도시국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이어지는 페리클레스 연설의 서술 구조는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그대로 옮겨졌다. 이어지는 내용과 표현 양식도 계속해서 페리클레스를 떠올리게 한다.

도시국가의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용기와 헌신이 필요했는지를 페리클레스의 연설만큼 강조한 것은 없다. 이를 칭송하는 도시국가의 행사를 마땅한 일로 여긴 것도 페리클레스였다. 그 어떤 것보다도 고결한 것은 도시국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몰자들의 행동에 있다는 것, 우리 가운데 살아 있는 그 누구도 도시국가를 위해 죽은 자보다 더 명예로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묻힌 곳을 신성하게 만든다는 것 등 모두가 페리클레스 연설에서 표현된 내용이다. 몸은 늙어도 명예는 늙지 않으며, 죽음으로써 지킨 명예는 영원히 잊히지 않는 불멸의 가치를 갖는다는 대목도 기억할 것이다.

이런 표현 양식을 잘 보면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수사학에서는 이를 ‘그리스적 대조법(antithesis)’이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견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나 구절을 한 문장 안에 배치하고 서로 대조시킴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수사학적 기법을 대조법이라 정의했다. 고대 그리스어는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말 즉, 대구(對句)가 없는 단어나 말은 없었는데, 이를 연설에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 대조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대조법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그리스 최고의 수사학자 고르기아스다. “두려워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의 표현은 너무나 유명하다.

고르기아스 이후 대조법의 장점을 가장 잘 구현한 사례가 바로 페리클레스의 연설이다. 링컨 역시 게티즈버그에서 이 대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말과 행동, 삶과 죽음, 개인과 나라, 잉태와 사라짐, 바쳐진 목숨과 불멸의 죽음, 시험받게 된 존재와 영원한 안식, 처음과 마지막 등을 한 문장 안에서 대조시키는 표현이 그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감당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대조법을 통해, 전사자들의 용기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they)과 우리(us), 그들이 이룬(have carried) 것과 남아 있는 사람이 완수해야 할 일(unfinished work)의 선명한 대조법 또한 청중들에게 회피할 수 없는 의무감을 갖게 했다. 마지막 부분도 페리클레스적이고 그리스적이다. 국가의 장례 행사 연설의 마지막에 살아남은 자들의 과업과 결의를 담는 것이 그리스 연설의 전통이었다. 링컨 역시 이를 따랐다. 단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과 ‘살아있는 우리’를 대조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단순화했을 뿐이다. 또한 페리클레스가 긴 논의를 통해 “민주적 정체와 민주적 삶의 양식”을 지키는 일의 대의를 풍부한 내용으로 표현해 냈다면, 링컨은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정부”라는, 정말 짧고 강렬한 표현을 동원해 연설을 종결지었다. 요컨대 미국 연방헌법의 정신 대신, 링컨 연설을 채운 것은 페리클레스였는데 그의 연설이야말로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옹호론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미국의 정치 전통에서 그리스와 민주주의를 불러온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5 민주공화정의 전통을 완성한 연설

돌아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일명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즉 독립 혁명을 이끌고 연방헌법 제정을 주도했던 이들의 이상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그들은 로마 공화정과 같은 혼합 정부(mixed government)나 스파르타처럼 잘 조직된 국

가를 염두에 두고 미합중국을 만들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귀족적 공화정에 가까웠고, 그들에게 아테네와 같은 민주정의 전통을 잇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럴 생각이 단순히 부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공유한 판단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민주정은 선동에 취약한 체제였다. 폭정으로 이 끌릴 위험이 큰 정치체제였다.

정신적으로도 미국의 건국자들은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신봉한 사람들이었다. 조지 워싱턴이 대표적이다. 그는 공화정의 부름을 받고 헌신한 뒤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로마인 키킨나투스에 빗대어 ‘현대의 키킨나투스’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미국의 건국자들이 중시했던 공화주의는 로마 건축 양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공건물은 물론 집을 설계할 때도 로마식 정원이 유행했다. 조지 워싱턴 역시 상속받은 자신의 저택을 로마식 정원으로 설계했다. 이처럼 미국의 건국자들이 만들고자 한 정부는 민주정이 아니라 현대적 공화정이었다.

물론 오늘날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민주주의는 아니었다는 사실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새롭게 들어와 공화정과 결합되는 데는 긴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어쩌면 연방 정부 수립 이후의 미국 정치사란, 길게 보면 공화정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오랜 갈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미국 정치의 중심 영역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핵심 이슈는 남부와 노예제 문제로 나타났다. 링컨과 그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바로 그 긴 전환 과정에서 분명한 위치 하나를 차지하는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1792년을 전후해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을 중심으로 민주공화당(Democratic Republican Party)이 만들어졌고, 그 잔류 세력이 1830년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중심이 된 민주당을 만들었지만, 이들에게서 민주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모호하고 혼란스러웠다. 민주공화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고, 제퍼슨은 연방 정부의 중앙집권화에 반대하는 공화파의 리더로 불렸다. 앤드류 잭슨은 참정권 확대를 추진한 동시에 흑인 노예 농장주의 주인이었고 원주민 축출에 앞장섰다. 노예제가 정치 문제로 등장한 것은 1840년대 말이었으며, 이것이 남부 문제로 이어진 것은 1850년대 초를 지나면서였다. 이 시기 이전까지 미국 정치는 주의 권리와 연방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

싼 다툼이 거의 전부였을 뿐, 민주주의나 민주정이 차지하는 독립적 의미나 위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다. 그는 미국 정치의 전통 안에 부재했던 아테네 민주정을 불러왔고, 이를 새로운 정치 전통으로 만들려 했다. 이 기초 위에서 노예제 폐지와 흑인 노예의 정치적 평등의 이슈를 제기하기 시작함으로써 미국 정치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즉 이제 링컨에게 미합중국은 공화정이되, 동시에 민주 공화정이어야 하며, 이 민주 공화정에 흑인 노예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이슈를 열어젖힌 것이다.

19세기의 미국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이슈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유행하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적인 문화와 스타일을 되살리려는 새로운 고전주의였다. 낭만적 헬레니즘이라고 불린, 이런 문화 부흥 운동의 성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게티즈버그 국립묘지(Gettysburg National Cemetery)였다. ‘세미터리’(Cemetery)란 그리스어 ‘코이메테리온’에서 온 말로, ‘잠드는 곳’ 내지 ‘영원한 안식처’라는 뜻의 어원을 갖는다. 앞서 링컨이 연설에서 말한 ‘마지막 안식처’(the final resting place)가 바로 세미터리의 어원이다.

과거 그리스 아테네는 에피타피오스(epitaphios)라고 불리던 국장 연설(國葬 演說)의 전통이 있었다. 즉 도시국가를 수호하다가 전쟁에서 사망한 병사들을 위해 국장을 치르고, 정치 연설을 함께 듣는 일이 중요 행사였다. 국외의 전장에서 사망한 병사들도 시신을 현장에서 화장한 뒤, 유품과 유골을 수습해 가져와 출신 지역별로 분리해 매장하면서 같은 의식을 가졌다. 이처럼 죽은 병사들을 위해 최후의 안식처를 만드는 일이 19세기 미국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았고, 당시에는 이를 ‘전원 묘지 조성 운동’(rural cemetery movement)이라 불렀다.

이 운동이 구현하고자 한 것은, 과거 로마식 성당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 납골당이나 향이 피워진 어둡고 음침한 공간과 대비되는 죽음의 이미지였다. 즉, 양초 향이 끔찍한 공포를 느끼게 할 뿐 누구의 모습도 알아볼 수 없는, 어둡고 폐쇄된 죽음의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대신 고결한 영혼이 깃든, 탁 트인 공원에 산책하기 좋을 만큼 수목이 둘러싼 공간을 마련해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교감하는 안식처를 만들고자 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적인 문화와 전통을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제 1863년 11월 19일의 게티즈버그로 돌아가 보자. 주 연설자 에버렛은 그리스 고전주의자로서 국립묘지 조성 운동에 가장 알맞은 연설자였다. 그가 2시간에 걸쳐 그리스 고전주의의 느낌이 충만한 연설을 했는데, 바로 그 토대 위에서 링컨이 연설을 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넣지 않았지만, 페리클레스가 칭송했던 아테네 정치 체제의 가치를, 매우 현대적인 문체로 유감없이 표현했다. 이 점에서 링컨은 고전주의자가 아니라 현대주의자였다. 현대 미국의 정치 연설과 산문의 기원을 이를 표현 양식을 정립한 사람이 되었다.

동시에 미국의 건국자들이 갖지 못했고 종래 미국 헌법에는 빠져 있던 민주주의의 전통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공식 행위를 하는 데 성공했다. 노예 해방이나 민주적 개혁에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민하게 이를 포착했다. 그래서 링컨의 연설에 대해 “스스로 수호하기로 맹세한 문서(헌법)”를 배신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오늘날에도 윌무어 캔들(Willmoore Kendall) 같은 보수적인 인사들은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 링컨이 “평등주의적 전제주의”를 피했고 “명백하게 과격한 사회 개혁을 지향”했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그의 비난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사태의 핵심을 꿰뚫은 중요한 발견도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남북전쟁 이후 헌법을 개정한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원칙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해석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설립의 조항(민주주의와 노예제 폐지)을 만들려 시도했다.”

결론적으로, 당시 게티즈버그 연설을 들은 청중들은, 개헌을 한 것도 아닌데 “링컨이 바꿔 놓은 새로운 헌법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이로써 게티즈버그 연설은 민주주의를 “새로운 국가 설립의 조항”의 하나로 추가하려 했던 링컨의 ‘은밀하고도 담대한’ 계획을 담은 공식 문서가 되었다.

6 흑인 노예제와 남부 문제 : 미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원죄

페리클레스와 마찬가지로 링컨은, 살아남은 자의 언어로써 죽은 자의 명예를 영원하게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장례 전통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참혹한 전장의 상처와 남은 자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마땅히 치러져야 했다. 그 자리에서 링컨은 죽은 자가 명예를 얻음으로써 산 자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언어를 정제하고 가다듬어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표현했다.

고대 아테네에서 페리클레스 연설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모든 정치 연설이 모방하고자 하는 문체의 스타일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민주주의 정부'를 대비시키는 그리스적인 수사학의 전통에 따라, 그의 연설에서도 대조법이 차지하는 역할은 컸다. 그리스적인 대조법은 또 다른 의미에서 민주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대비되는 반의어의 짝이 없는 정치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정치적 이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가들은 이런 대조법을 쓰지 못한다. 이런 대조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방향의 주장과 정책만을 말하는 정치가는 사회와 공동체를 통합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정치적 경쟁자를 자신과 대조되지 않는, 즉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의하면서, 자신을 부각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국외의 적이 아닌 한, 동료 시민과 여야는 공존하는 존재이고 서로를 통해 서로가 좋아지는 존재, 서로의 발전을 통해 마주 보며 성장하는 대상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적 대조법이 갖는 민주적 가치는 거기에 있고, 그래야 민주정치 안에서 갈등적인 문제를 개선해 갈 수 있다.

당시 미국 정치에서 흑인과 남부, 노예제가 그런 이슈였다. 링컨도 게티즈버그 연설 이전까지는 이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다. 북부와 남부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일은 그래서 벌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총칼로 수행된 내전을 말로써 마무리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최고의 책임 있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재선에 도전하면서 링컨이 하려 했던 일은 바로 그것이었다.

흑인 노예제라고 하는, 미국의 공화정 나아가 미국 민주정의 원죄(original sin)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었다. 게티즈버그 연설을 마친 뒤 링컨은

이듬해 말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그리고 북부의 승리로 남북 전쟁이 매듭지어지는 시점이었던 1865년 4월 3일에 대통령 재임 연설을 했다. 이제 더 이상 흑인 노예제와 남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는데, 그때 링컨은 어떤 연설을 했을까?

“동료 시민 여러분, 두 번째 대통령직 취임 선서를 하는 이 자리 역시, 첫 취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긴 연설을 할 상황은 아니다. 그때는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추구해야 하는지 다소 자세하게 밝힐 필요는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의 임기를 만료한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다툼의 문제에 여전히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된 모든 쟁점과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공식 발표가 있었기에, 새삼 꺼내 놓을 새로운 사실은 없다. 모든 것은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달려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현재 상황은 대체로 우리에게 만족스럽고 고무적이다.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다. 다만 감히 예측을 분명히 내놓기가 어려울 뿐이다.

4년 전만 해도 모든 관심은 임박한 내전에 쏠려 있었다. 모두가 전쟁의 발발을 두려워했다. 모두가 전쟁만은 피하고자 했다.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전쟁 없이 미 연방을 구하는 데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는 취임사를 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이 도시의 한편에는 반란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연방을 해체하고 그 재산을 나누고자 했다. 전쟁에 반대하기는 양쪽이 다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한쪽은 연방을 그대로 유지하느니 차라리 전쟁에 나서고자 했다. 다른 한쪽은 연방을 없애기보다는 전쟁이라도 감수하려 했다.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

이 나라 인구의 8분의 1은 흑인 노예다. 그들은 이 나라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부 지역에 몰려 있다. 노예 소유는 특수하면서도 강력한 이해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이해관계야말로 전쟁 원인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연방을 깨뜨리고 그 이해관계를 강화하고 영속화하고 또 확장하려는 것이 바로 반란자들의 목표였다. 반면 정부는 그런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 이상을 요구한 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발발한 이 전쟁이 이처럼 대규모로, 이토록 오래 계속되리라고는 어느 쪽도 예상하지 못했다. 어느 쪽도 전쟁을 초래한 원인이 전쟁을 통해 제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양측 모두 자신이 쉽게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근원적으로 경악스러운 결과가 초래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남부와 북부 양측 모두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신에게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응징하는 데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간청하고 있다. 남이 흘린 땀으로 빵을 얻는 자들이 감히 정의로운 신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자 한다면 상대 또한 심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 어느 쪽의 기도도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지금까지 어느 쪽도 신의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전능한 신은 그 자신의 목적을 갖고 계신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행하여라. 이 세상에 죄악의 유혹은 있게 마련이나 남을 죄짓게 하는 자는 참으로 불행하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바로 그 같은 세상의 죄 가운데 하나이다. 신의 뜻대로 그것이 이 세상에 있게 마련인 죄의 하나라고 한다면, 그러나 신이 정한 시간 동안 지속된 그 죄를 이제 신께서 그만 거두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자들로 인한 재앙을 징벌하고자 신께서 이 끔찍한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살아 계신 신을 믿는 자들이 언제나 그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성한 뜻, 그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겠는가?

이 거대한 재난적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나 품삷 한 톨 주지 않고 노예의 땀으로 모은 250년의 재산이 모두 탕진될 때까지, 3천 년 전의 말씀에서 이르듯 채찍으로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스스로 칼에 맞아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되갚게 되는 날까지 이 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신의 심판은 참되고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말고, 모든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 정의로움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자. 이 나라의 상처를 꿰매기 위해 노력하자. 나아가 이 싸움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사람과 그의 미망인과 고아가 된 그의 아이를 돌보고 우리 사이에서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함께 정의롭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일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자.”

7 정치가의 슬픈 운명

미국의 건국을 가져온 ‘독립 혁명’과 ‘헌법 혁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흑인 노예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링컨의 연설에 대해 “최악이 대물림된 미국 역사를 정화하는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혹은 “미래를 영원히 변화시켜 줄 새로운 과거를 제공함으로써 혁명 그 자체를 혁명”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물론 링컨의 연설이 담고 있는 혁명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내전의 상처와 노예제의 폐해가 이내 해결된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군사적으로 내전은 끝났을지 몰라도 정치적 내전 상황은 오래 지속되었다. 게티즈버그 연설 이듬해에는 노예제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 노력이 이어졌다. ‘수정 헌법 13조’가 대표적이다. 수정 헌법 13조 제1항은 이렇다. “어떠한 노예제도나 강제 노역도, 해당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판결로서 확정된 형벌이 아닌 이상, 미합중국과 그 사법권이 관할하는 영역 내에서 존재할 수 없다.” 제2항은 이렇다. “의회는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본 조를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헌법 수정이 아닐 수 없다. 그 정도의 수정을 하는 데도 엄청난 갈등과 논쟁이 동반되었다.¹⁶⁾

아무튼 재임 연설이 있던 뒤 10일 후인 4월 14일, 링컨은 남부 출신 배우의 총에 맞았고 그 이튿날 사망했다. 암살이라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맞은 링컨의 시신은 국립묘지의 한 귀퉁이에서 “최후의 안식처”를 찾는 운명이 되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링컨의 정치 연설이 더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가 평탄하게 삶을 마감했더라면, 정치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오명을 얻는 상황에 맞닥뜨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게티즈버그 연설 직전에 링컨은 이미 아들을 내전에서 잃었다. 우울증이 그를 심하게 괴롭혔다. 젊은 시절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죽은 뒤 앓게 된, 그로서는 ‘영원히 헤어 나올 수 없는’ 우울증이였다. 영부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때문에 링컨을 선택했던 링컨 부인(메리 토드 링컨 Mary Todd Lincoln)의 히스테리로 말미암아 또

16)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2012년에 만든 영화 <링컨>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게티즈버그 연설 이후 약 1년 반의 기간에 있었던 일이 이 영화의 중심 주제라는 뜻이다. 이를 통해 수정 헌법 13조를 위해 링컨과 그의 팀들이 협잡과 매수, 폭력과 기만조차 마다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잘 그려냈다.

다른 고통이 그의 삶을 짓눌렀다. 링컨을 향해 “당신은 최고 권력을 가졌는데, 왜 내 소중한 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어 내 가슴을 찢어 놓는가.”라며 소리쳤던 그녀 역시 링컨이 죽은 뒤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어쩌면 그 어떤 위대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정치를 하는 한 겪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 내전으로부터 헤어 나오기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어디에선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링컨에 대한 추모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링컨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인간의 위대함과 동시에 한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그도 회의적이었을 때가 있었다. 실패한 적도 있었다. 좌절할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연설의 힘을 통해 그는 한 나라를 움직였고 민중을 자유롭게 했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부족하지만 그래서 별 볼 일 없다가 아니라, 바로 그렇기에 정치가로서 해야 할 과업을 완수하고자 하면서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위대한 일이 아닌가 한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과 재임 연설은, 경력의 정점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곧 내리막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정치가의 슬픈 운명을 대표하는 정치 연설의 한 사례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

참고 흑인에게 미국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프레더릭 더글러스

1. 흑인 노예에서 독립기념일이란

연설이 늘 편한 자리나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예에게 노예제에 대해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던? 권위주의 독재정권 앞에서 야당에게 정치 연설의 기회가 주어진다던? 예기치 않게 소수파가 승자가 되어 앞에 나가 연설을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던? 아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은 많을 것이다. 주변 분위기나 청중들의 기대에 정신적으로 종속된다면 연설의 힘은 실현될 수 없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남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

미국 노예에게 7월 4일(독립기념일)은 어떤 의미일까? 이 질문에 대한 프레더릭 더글러스(Frederick Douglass)의 답변만큼 인상적인 것도 드물다. 그는 흑인 노예 출신이다. 독학으로 글을 깨쳤다. 12세 무렵에 알파벳과 쉬운 단어를 배웠는데,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그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글을 읽고 쓰고 말한다는 것은, 그에게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 도망 노예로 쫓기면서도 연설도 하고 글도 쓰면서 평생 민권운동에 헌신했다.

1852년 그는 백인 진보단체로부터 미국 독립기념일에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이런 잠재적 질문을 갖고 연설에 임했다. 흑인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독립을 축하한다고? 백인들이 자신을 연설자로 초청하고 이를 통해 미국 민주주의를 자랑한다고? 이 얼마나 위선적인 일인가. 더글러스는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격조가 있었다. 그의 연설에 백인 진보파들은 몹시 부끄러워하면서도, 그의 연설 내용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이 연설은 자유의 전통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남겨졌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연설을 보면, 동료 시민이란 말이 위선이 아닐 때 민주주의는 확고한 정치문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옮겨본다.

2. 연설의 주요 내용

나의 동료 시민들이여. 미안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오늘 왜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걸까? 내가, 혹은 내가 대변하는 흑인들이 당신들의 독립기념일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정치적 자유와 자연적 정의라는 이 위대한 원칙이 우리 흑인에게 미치고 있는가?

.....

애석하게도 우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기념일을 즐길 수 있는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 당신들의 그 고귀한 독립은 우리 사이의 어마어마한 차이만 드러낼 뿐이다.

오늘 당신이 기뻐하는 이 축복은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정의와 자유, 번영과 독립이라는 이 풍요로운 재산은 당신들의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다. 당신들에게 삶과 치유를 안겨준 햇빛이 나에게서는 계급과 죽음을 안겨다 주었다.

7월 4일은 당신들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기뻐할 테지만 나는 애도해야 한다. 거대하게 불 밝힌 자유라는 신전 안으로 족쇄가 채워진 사람을 끌어들여 환희의 국가를 함께 불러 달라고 청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조롱이며 신성을 모독하는 역설이다.

당신들은 조롱하기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당신들과 아주 유사한 행동을 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경고 하나 하겠다. 하늘에 가닿으려는 죄를 지어 결국 전능한 신의 입김 한 번으로 쓰러진 뒤 돌이킬 수 없는 폐허 속에 묻혀버린 어느 국가의 전례를 따르는 일은 위험하다! 이 자리에서 나는 가슴이 찢어지고 비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슬픈 애가를 바치고자 한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도다.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노라. 우리를 잡아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라 칭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흥을 돋우라 요구하면서 시온의 노래를 한가락 부르게 하였다.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르겠느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의 쓰임도 잊히게 하여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여라.”

동료 시민 여러분, 나의 귀에는 당신들의 국가적인 환희, 떠들썩한 기쁨의 소리 위로 수백만 명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에게 채워진 지난날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족쇄는 기념일의 함성 앞에서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내가 이들을 잊게 된다면, 지금 피 흘리는 저 아이들의 슬픔을 빠짐없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오른손의 쓰임도 잊힐 것이요, 내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을' 것이다! 이들을 잊고, 이 잘못을 가버이 넘겨버리고, 축제의 가락에 동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추악하고 충격적인 반역을 저지르는 일이다. 그것은 신과 세상 앞에서 비난을 받을 일이다.

.....

이 나라의 행적이 이번 7월 4일만큼 암울해 보인 적이 없었다! 과거의 선언으로 되돌아가든, 현재의 신념으로 방향을 틀든 이 나라가 보여주는 처신은 똑같이 흉측하고 혐오스럽다. 미국은 과거를 배반하였고 현재를 배반하였으며 미래 역시 배반하리라고 엄숙히 맹세하였다.

나는 신의 편에 서서, 짓밟히고 피 흘리는 노예들 편에 서서 격분한 인류의 이름으로, 속박된 자유의 이름으로, 목살되고 짓이겨진 헌법과 성경의 이름으로, 노예제를 영속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 미국의 대역죄이자 수치에 대해 온갖 강조법을 동원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맹렬히 비난할 것이다! 나는 얼버무리지 않을 것이며 변명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가장 가혹한 말을 있는 힘껏 끌고 올 것이다.

.....

내가 노예제를 반대한다는 신념을 내세워서 어떤 점을 주장하기를 당신들은 바라는가? 미국인들은 이 문제의 어떤 부분을 조명하길 바라는가? 노예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할까? 이 문제는 이미 인정되었다. 노예도 인간임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노예 소유자도 정부가 법을 제정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 불복종하는 노예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도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노예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이미 받아들여졌다. 노예에게 읽거나 쓰기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엄한 벌금과 처벌을 가하는 남부의 법률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런 법률을 지적하면서 노예가 사육장의 짐승이기 때문이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노예가 인간임을 주장할 것이다. 길거리의 개가, 하늘을 나는

새가, 언덕 위의 소가, 바다의 물고기가, 기어 다니는 파충류가 짐승과 노예를 구분하지 못할까? 진정 구분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가서 노예가 인간임을 당신과 다뤄서라도 주장하겠다.

지금까지 흑인이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되었다. 우리도 밭을 일구고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온갖 연장을 사용하며, 집을 짓고 다리를 건설하고 배를 주조하고 낫쇠나 철, 구리, 은이나 금 등으로 무언가를 만든다. 우리도 읽고 쓰고 암호를 사용하며 성직자, 상인, 비서로 행동하고, 우리 중에는 변호사나 의사, 성직자, 시인, 작가, 편집자, 연설가, 교사도 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각종 기업에 근무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캐고, 태평양에서 고래를 잡고, 언덕에서 양과 소를 먹이면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신께 죄를 고백하고 그를 찬양하면서 희망에 찬 삶을, 죽음 뒤의 영원을 바란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해보라고 하는데 겁낼 것이 무엇 있겠는가!

.....

하늘 아래 살면서 노예제가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며, 그들의 노동을 대가 없이 부려먹고, 그들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연신 무시하며 몽둥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살갓을 내려치고, 사지를 쇠사슬로 묶고, 개를 풀어 사냥하고, 시장에 내다 팔고, 가족을 뿔뿔이 떼어내고, 주인에게 항복하고 복종할 때까지 굶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정녕 말해야 할까? 피로 물들고 때로 얼룩진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정녕 말해야 할까? 아니!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당연한 주장만 하고 있기에는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

.....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장을 납득시킬 것이 아니라 모순을 태워 없애야 한다. 아! 내게 그런 능력만 있다면, 미국의 귀에 대고 조롱을 퍼붓고 비난을 쏟아내며 설 새 없이 빈정대고 엄정히 힐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필요한 것은 불빛이 아니라 불길이다. 잔잔한 비가 아니라 천둥이다. 지금 우리에게서 폭풍이, 회오리바람이, 지진이 필요하다. 이 나라의 감정이 솟구쳐 올라야 한다. 이 나라의 양심이 눈을 떠야 한다. 이 나라의 도덕적 적실성이 깜짝 놀랄 위기를 맞아야 한다. 이 나라의

위선이 드러나야 한다. 이 나라가 신과 인간을 거역했음이 선포되고 비난을 받아야 한다.

미국 노예에게 7월 4일은 어떤 의미일까? 자신이 철저한 부당함과 잔인함 앞에서 변함없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뼈저리게 깨닫는 날이다. 미국 노예에게 당신들의 기념일은 가식일 뿐이다. 당신들이 추켜세우는 자유는 불경스러운 허가증이다. 당신들이 치켜세우는 국가적 위대함은 부풀어진 허영이며, 당신들이 내는 환희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냉혹하다. 폭정을 향해 당신들이 퍼붓는 맹렬한 비난은 철갑을 두른 뻔뻔함이다. 자유와 평등을 향한 당신들의 외침은 속 빈 조롱이다.

당신들의 기도와 찬송, 당신들의 설교, 온갖 종교적 축제를 곁들인 당신들의 추수 감사절, 당신들의 엄숙함 모두 미국 노예의 눈에는 그저 걸만 번지르한 엉터리예, 기만적이고 불경하며 위선적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들의 눈에 당신들은 야만적인 국가의 체면에 먹칠하는 죄악을 얇은 베일로 가리고 있는 셈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은 이곳, 지금 이 순간의 미국 국민밖에 없다.

어디든 가보라. 마음 가는 대로 찾아가 보고, 과거 군주제와 폭정이 자행되던 곳을 빠짐없이 떠돌아다녀 보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해보라. 그곳에서 학대의 현장을 찾아보라. 드디어 보게 되었다면 이 나라에서 매일 같이 자행되는 관행과 나란히 두고 비교해보라. 그럴 때에야 비로소 당신들은 역겨운 만행과 수치스러운 위선에 있어서 미국이 과연 압도적이라는 나의 말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제3절

전쟁은 웃으며 하는 거다 : 윈스턴 처칠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처칠 연설이 가진 연극적 요소

윈스턴 처칠은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이끈 총리로 유명하다. 전쟁 후 노벨상을 받았다. 보통 정치가에게 부여되는 평화상이 아니라, 2차 대전 비망록을 쓴 작가로서 문학상을 받았다. 그 점에서 처칠은 정치가인 동시에 작가였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재능은 연설에서도 잘 나타난다.

처칠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는 재무장관을 지낸 유명한 정치가였지만, 권력투쟁에서 밀려 그 이상의 경력을 쌓지 못했다. 처칠은 아버지의 정치적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적에게 타협을 요청하면서도 유머와 기지를 발휘하고자 노력했고, 그것이야말로 처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매력이었다.

아들이 군인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부친의 권유로 3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그 뒤 군인으로서 경력을 쌓았다. 졸업 후 기병 소위로 임관, 보어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 생활을 했다. 수용소에서 겨우 탈출한 처칠은 로마 가톨릭교회 신부로 변장해 추격의 손길을 벗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장관을 맡았으나, 작전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장관직을 사퇴했다. 이 때문에 깊은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 악귀 같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골에서 수채화를 그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중령으로 복귀해 다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당시 그는 유머를 활용해 군인들의 사기를 높였다. 또한 병사들의 목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전염병 예방과 피부병 치료를 위한 것인 동시에 정신적으로 긴 전쟁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병사들에게 그가 자주 했던 표현 가운데 유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겁먹지 말게. 전쟁은 웃으면서 하는 것이야.”였다. 이를 통해 처칠은 군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보수당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보수당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도 했으나, 결국 보수당으로 돌아갔다. 그 때문에 처칠은 자주 배신자로 낙인찍히곤 했고, 정계에서 퇴출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 내각을 이끌기 위해 다시 정치에 복귀했다.

처칠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종전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처칠은 패배했다. 그때가 1945년 7월이었는데, 그 때문에 총리 자격을 잃고 포츠담 회담 당시 중도 귀국해야 했다. 1955년에 정계 은퇴를 한 뒤, 1965년 1월 24일, 90세로 세상을 떠났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정치인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연극 무대에 올라 서 있는 것 같은 처칠의 유쾌한 연설을 보자. 2차대전 당시는 영국 시민 모두가 공포로 떨었던 순간이었지만, 그의 연설에서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2 1940년 5월 13일 전시 내각 취임 연설

지난 금요일 저녁 나는 국왕 폐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다.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의회와 국가의 분명한 바람이자 의지이기도 했는데, 새 행정부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구상되어야 하며 지난 행정부를 지지한 정당은 물론 야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이 임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쳤다. 전시 내각은 다섯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노동당과 자유당, 그리고 조국의 단결을 대표한다.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 때문에 조각을 하루 만에 완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요직은 어제 인선했다. 오늘 나는 추가 명단을 국왕에게 제출할 것이다. 내일 안으로 주요 장관의 임명을 끝낼 예정이다. 그 밖의 다른 장관들의 임명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의회가 다시 개회할 때는 모든 면에서 내각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믿는다.

.....

지금 우리는 역사상 최대 결전으로 돌입하는 그 입구에 와 있다. ... 나는 이 내각에 참여한 장관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말씀드리겠다. 나는 피와 수고, 눈물 그리고 땀밖에는 달리 드릴 것이 없다(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우리는 가장 심각한 시련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길고 긴 투쟁과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들은 묻는다, 당신의 정책은 무엇인가? 나는 답한다. 육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신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 어둡고 개탄스러운 인간의 범죄목록 어디를 훑어보더라도 유례가 없는 저 괴물과 같은 압제자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정책이다.

여러분들은 질문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다. 승리다. 승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폭력을 무릅쓰고라도 승리다. 거기에 이르는 길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승리다.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에 오직 승리뿐이다.

바로 그 승리를 실현하자. 그것 없이는 대영제국의 생존도, 대영제국이 버티어온 모든 것들의 생존도, 인류가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만드는 시대의 욕구와 심장의 고통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가득 찬 희망을 안고서 나의 임무를 인수하는 바이다. 나는 우리의 소명이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나는 이 시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호소하는 바다.

3 1940년 6월 4일 의회 연설

이 연설이 있는 지 얼마 후인 1940년 6월 4일 처칠 수상은 영국 의회에서 다시 연설했다. 당시는 프랑스의 운명이 암울한 상황으로 떨어진 때였다. 처칠은 붕괴 직전인 우방 프랑스의 군사 상황을 전하면서 영국만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연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목만 보자.

“유럽의 많은 부분과 수많은 명문 국가들(old and famous states)이 게슈타포의 손아귀와 가증스러운 나치의 강권 기구 손에 넘어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해낼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우고 바다에서, 대양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가일층의 자신감과 역량을 발휘해 하늘에서 싸워 우리의 섬을 지켜낼 것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안에서도 상륙 지점에서도 싸울 것이다.

우리는 들판에서,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본 적은 없지만, 이 섬이나 섬 대부분이 강점당하고 굶주림에 직면하더라도 대영제국은 영국 함대의 보호 속에서 무장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4 1940년 6월 18일 의회 연설

며칠 뒤인 1940년 6월 18일 처칠은 다시 의회에 나섰다. 독일 기갑군단의 전격전 전술로 프랑스의 붕괴가 확실해지고 영국이 홀로 독일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가 싸우도록 내버려두면, 미래를 잃게 될 것이다(if we open a quarrel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we shall find that we have lost the future).”라며 항전의 의지를 재차 다짐했다. 끝으로 영국이 미래의 역사를 갖게 된다면(독일에 의해 영국이 패망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최악의 위기는 거꾸로 “최고의 시절(The Finest Hour)”로 기억될 것이라며, 낙관적 의지를 잃지 않게 했다.

“영국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다. 이 전투에 기독교 문명의 생존이 달려있다. 우리 영국인의 생활과 우리 체제와 우리 제국의 영속성이 이 전투에 걸려 있다. 적의 모든 파괴력이 곧 우리에게 쏟아질 것이다. 히틀러는 이 섬에서 우리를 파멸시키든지 아니면 이 전쟁에서 자신이 패배하든지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그와 맞설 수 있다면 유럽 전체는 자유를 찾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은 밝은 햇살이 비치는 저 높고 넓은 곳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그간 우리가 애정을 쏟아부은 모든 것들과 함께, 새로운 암흑시대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 암흑시대는 악용된 과학의 힘 때문에 더 괴이하고 더 오래 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에 우리 자신을 한 덩어리로 단단히 묶으며 다짐한다. 만약 대영제국과 영연방이 앞으로 천 년 동안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그때가 최상의 시절이었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5 1940년 8월 20일 의회 연설

1940년 8월 20일 처칠 수상은 다시 하원에서 연설했다. 그때는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을 맞이해 도버 해협과 영국 상공에서 공중전을 벌이던 때였다.

“우리의 섬과 우리의 제국,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가정은 영국의 공군 용사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그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굽히지 않고, 지속적인 도전과 생명의 위협에도 지치지 않고서 지금 그들의 무용과 헌신으로써 이 세계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인류의 전쟁사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많은 빛을, 이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Never in the field of human conflict was so much owed by so many to so few).”

6 여유와 유머, 웃음을 잃지 않았던 정치가

이상에서 보듯, 처칠은 독일에 의해 영국의 운명이 암흑 속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서도 수사학의 가르침에 충실한 연설을 했다. 적어도 공포심이나 절박함, 조바심이 느껴지는 연설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의 연설에는 언제나처럼 문학적인 표현과 연극적 요소가 두드러졌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 영화 속 혹은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곧 올 반전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결국에 가서 승리를 거머쥘다면, 그 뒤 오늘의 고난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상상해보게 한다.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이 좋았던 때라고 기억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 좌절할 것도 없고, 도망치고 싶어질 일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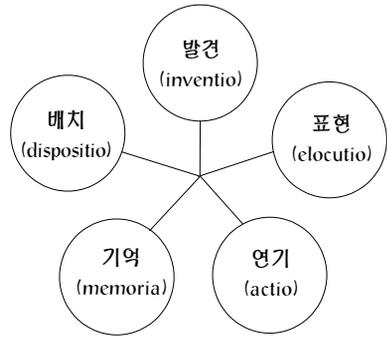
이 정도면 “겁먹을 필요 없어. 전쟁도 정치도 웃으면서 하는 거야.”라는 그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전쟁 중에도 낮잠을 즐긴 처칠. “나에게 정오의 낮잠은 균형감과 에너지의 원천”이자 오히려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응수한 사람. 생각해보면 참으로 특별한 면모를 가진 정치 지도자가 아닐 수 없다. “정치가라는 직업은 암도 피해갈 정도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맡는 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처칠이야말로 그런 정치가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정치인들도 제발 여유와 유머,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쟁통에도 그래야 하는 게 정치다. 별것도 아닌 일에 상대 정파와 증오와 적대를 교환하는 정치라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 어둡고 비열한 표정만 보이는 정치인을 지켜보며, 어떤 시민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고1 전투에 졌으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샤를 드골

1. 우리는 항복하지 않았다

1940년 6월 18일 영국 런던 BBC스튜디오. 독일이 점령한 조국을 탈출한 프랑스군 육군 소장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이 마이크를 잡았다. 필리프 페탕 원수가 독일과의 휴전을 프랑스 국민에게 설득한 지 하루 만이다. 1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프랑스인의 존경을 받던 페탕 원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쥐어뜯는 듯한 답답한 심정으로 이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페탕의 부관 출신인 드골의 방송 내용은 전혀 달랐다. “프랑스는 전투에서 졌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지지 않았다. 이 전쟁은 세계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자유 세계가 적들을 분쇄할 승리의 순간을 프랑스는 함께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프랑스는 자유와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모두 함께 싸우자! 프랑스 만세!” 드골의 메시지는 그날 밤 10시에 전파를 탔다.

7월 10일, 프랑스 의회는 페탕 원수에게 모든 권력을 넘기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472 대 80(기권 17)으로 통과시켰다. 훗날 ‘독일의 괴뢰정권’이라는 평을 받은 비시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미국과 소련마저 비시 정권을 프랑스의 합법 정부로 여겼다. 드골을 ‘유력 망명객’으로 인정한 것은 오로지 영국의 윈스턴 처칠뿐이었다. 런던의 프랑스대사관은 드골에게 군사재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비시 정부는 켈석 재

판에서 드골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혐의는 국가에 대한 반역.’

국내에서 조직된 레지스탕스는 1944년 봄에 12만 명, 그해 말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불어났다. 종전 무렵 자유프랑스군은 120만 명으로 연합국 5위의 병력을 거느렸다. 프랑스는 전승국의 일원으로 대우받았다.

미래를 위해 눈앞의 안위와 타협하지 않은 드골의 연설을 역사는 위대한 전환점으로 기록에 남겼다.

2. 1940년 6월 18일의 항독 선언

“수년간 프랑스 군대의 수뇌부로 있던 지도자들이 정부를 구성했다. 이 정부는 우리 군대가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투를 중지하기 위해 적과 결탁했다. 물론, 우리는 적의 기갑군, 육군, 공군에게 압도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우리를 후퇴하게 한 것은 독일군의 수라기보다는 그들의 탱크, 비행기, 전술이다.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을 충격에 빠뜨려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도 바로 독일군의 탱크, 비행기, 전술이다.

그러나 이대로 끝내야만 하는가? 희망은 사라져야 하는가? 완전히 패배한 것인가? 아니다! 내 말을 믿으시라. 사정을 잘 알고 이야기하는 나를 믿으시라! 여러분께 프랑스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말하는 나를 믿으라! 우리를 쳐부순 것과 똑같은 그 수단들과 전략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승리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혼자가 아니다! 프랑스의 배후에는 광대한 제국이 있다. 프랑스는, 바다를 장악한 채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대영제국과 단결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영국처럼, 미국의 거대한 산업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불운한 영토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전쟁은 프랑스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세계 전쟁이다. 모든 실책과 지체, 고통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의 적을 무찌르는 데 필요할 모든 수단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 오늘 우리는 기갑군에게 제압당했지만, 미래에는 보다 뛰어난 기갑군으로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운명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

현재 런던에 있는 저, 장군 드골은 무기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현재 영국 영토에 있거나 앞으로 이곳에 올 프랑스 장교와 사병들, 그리고 군수산업 기술자들과 전문 노동자들에게 저와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프랑스에서 저항(레지스탕스)의 불꽃이 꺼져서는 안 되며, 꺼지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런던의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말할 것이다.”

참고2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 프랭클린 루스벨트

1. 전환기의 정치가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서 최장기간(1933~1945) 재임한 대통령이다. 뉴욕의 상류층 자제로 태어났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뉴욕 주 상원의원과 뉴욕 주지사를 거쳐 대통령직에 올라섰다. 대통령직을 네 번 하는 동안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있었고, 종전 몇 달을 앞두고 사망했다. 재임 중 총 945회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한 것이다.

네 번의 취임 연설 가운데 첫 번째 연설이 최고로 꼽힌다. 취임식 당시 미국의 대공황은 4년째에 접어들고 있었다. 실업자는 수백만에 달했고 미국의 은행 2만 4천 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파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루스벨트의 당선은 미국 정치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히틀러와 비슷한 시기에 집권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루스벨트는 취임 연설에서 대공황에 신음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뿐이라는 명연설을 했고, 과거 남부의 노예주를 대표했던 민주당을 자유주의적인 진보정당으로 변화시켰다.

2. 대통령 취임 연설

동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취임을 하면서 현재 미국의 상황에 걸맞게 솔직하고 결연한 연설을 하리라 기대할 것이다. 지금은 진실을, 온전한 진실만을 솔직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오늘날 우리 국가가 처한 상태를 가감 없이 대면한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이 위대한 국가는 예전에도 그러했듯 반드시 견뎌낼 것이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변영할 것이다.

그러니 우선 나의 확고한 믿음부터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이름도 없고 터무니도 없으며 정당하지 못한 그 공포는 후퇴에서 전진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노력마저 마비시킨다. 조국에 암흑이 드리울 때마다 정직하고 힘 있는 리더십은 승리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만났다. 나는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중대한 시기에 다시 한 번 그러한 지지를 보내주리라 확신한다.

여러분과 나는 그런 마음으로 공통의 어려움에 맞서고 있다. 다행히 그 어려움은 물질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화폐가치는 기상천외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세금은 인상되었지만 우리의 납부능력은 떨어졌다. 정부 모든 부처의 세금 소득은 감소했다. 거래 시장에서는 화폐 흐름이 얼어붙었다. 기업은 시든 잎사귀처럼 여기저기 떨어져 있다. 농부들이 생산물을 팔 시장이 없어졌다. 수천 가구가 수년 동안 저축한 돈이 모두 사라졌다. 그보다 더, 실업자 대다수가 암울한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이들이 보잘것없는 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어리석은 낙관주의자들만이 지금의 암울한 현실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괴로움은 물질적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의 습격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확신을 품고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무수한 역경과 비교해보면 우리에게는 아직 감사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자연은 여전히 너그럽게 자신을 내어주고, 인간은 노력을 통해 그 혜택을 늘려 왔다.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널려 있는데 이들을 제대로 쓰지 못해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인류의 상품 교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완고하고 무능한 탓에 상품 교역에 실패하고는 그 실패를 인정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부도덕한 금융업자의 소행은 여론의 심판대에 오르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지지를 잃었다.

실로 그들은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낡은 전통의 틀에 얽매어 있었다. 신용거래가

실패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로지 더 많은 돈을 대출하라는 제안만 했다. 시민들에게 자신의 그릇된 리더십을 따르게 하려고 던졌던 이윤이라는 미끼마저 잃어버리자 그들은 이제 강력한 추구와 눈물로 호소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려 했다. 그들은 이익 추구 세대의 원칙만 알고 있다. 그들에겐 비전이 없으며, 비전 없는 사람은 파멸하고 만다.

금융업자들은 우리 문명의 신전에서 차지하고 있던 높은 지위로부터 도망쳤다. 이제 우리는 그 신전을 다시 고대의 진실로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의 가능성은 우리가 단순한 금전적 이익보다 더 숭고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느냐에 달려있다. 행복은 단순히 돈을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성취하는 기쁨에서, 창조적으로 노력하는 전율에서 온다. 일하는 기쁨과 그에 따른 도덕적 자극이 덧없는 이윤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 때문에 가려져선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암흑기를 통해, 진정한 운명이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포를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지금 받는 고통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물질적 부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에 발맞춰 관공서나 고위급 정치인의 지위가 직위에 대한 자부심이나 개인적 이익만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그릇된 믿음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냉담하고 이기적인 부정행위를 선호함으로써 성스러운 진실을 호도하는 은행이나 기업체의 행태도 막을 내릴 것이다.

신뢰가 사라진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다. 신뢰는 정직과 명예를 통해서만, 의무를 신성시하고 충실히 보호하며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만 피어나가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없으면 신뢰는 존속할 수 없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윤리적인 변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행동이,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과업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현 상태에 현명하고 용기 있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는 정부가 급박한 전쟁의 위기를 다루듯 신속히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자원의 활용을 자극하고 재조직하는 과제 역시 완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발맞춰 우리는 산업 지역 내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인식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의 재배치를 추진함으로써 토지의 쓰임새에 걸맞게 인구 재배치로 토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 과업은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면서 더불어 각 도시 생산

물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고자 분명히 노력할 때 달성될 수 있다. 이 과업은 우리의 작은 집과 농장이 압류되면서 점차 커져가는 손실의 비극을 현실적으로 예방할 때 달성할 수 있다.

이 과업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지방 정부가 지금 당장 경비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따를 때 달성할 수 있다. 이 과업은 현재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비경제적이며 불평등한 구호 활동을 통합할 때 달성할 수 있다. 이 과업은 모든 교통수단과 통신수단, 그밖에 공공성이 분명한 공익사업을 국가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때 달성할 수 있다. 우리의 과업을 달성할 방법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재개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낡은 제도라는 악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두 가지 방어책을 쓸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은행과 신용, 투자 업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기하는 행태를 종식시키고, 충분하면서 안정적인 통화를 공급해야 한다. 그밖에도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새 의회의 특별회의에서 자세한 방안을 촉구할 것이며, 몇몇 주의 즉각적인 지원도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 방침을 통해 우리는 국내 주택상황을 정비하고 수지를 맞출 것이다. 국제무역 관계 역시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시기성이나 필요성에서 볼 때 국내경제의 안정성 확보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나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한다는 현실적인 방침을 따르겠다. 나는 국제 경제를 재조정하여 세계 무역시장을 재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위해 국내의 시급한 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내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이끄는 기본 이념은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니다. 미국 전반의 다양한 요소가 상호 의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이면서 언제까지나 중요한 미국인의 개척자 정신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즉각적인 방법이다. 이것이야말로 회복이 지속되리라고 강력히 확신할 수 있는 길이다.

세계 정책 분야와 관련해 저는 선린 외교를 이 나라의 정책으로 삼고자 한다. 자신을 단호하게 존중하는 이웃은 그림으로써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며, 자신의 의무를 존중하는 나라는 세계 이웃 나라와 체결한 협정 역시 신성한 것으로 존중할 것이다.

내가 우리 시민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상호 의존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받기만 할 수는 없으므로 베풀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잘 훈련된 충성스러운 군대처럼 공동의 규율이라는 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전진해야 한다. 이러한 규율이 없으면 어떠한 전진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리더십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우리가 이러한 규율에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러한 희생이 뒷받침될 때 더 큰 선을 목표로 하는 리더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나라로 단결하여, 지금까지는 전시 중이나 불려일으키던 의무에 신성한 복종을 약속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맹세를 통해 나는 우리 시민이라는 이 위대한 군대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공통된 문제에 대해 혼신을 다해 질서정연한 공격을 퍼부을 것을 주저 없이 다짐한다. 이러한 구상과 목적에 따른 행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부 형태 아래에서 실현 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간결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기본 틀을 잃지 않고도 강조점이나 배열만 바꾸어서 특별한 필요에 맞출 수 있다. 이야말로 우리의 헌법이 현대 사회가 만들어 낸 정치제도 중 가장 뛰어나며 영속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은 방대한 영토 확장, 외국과의 전쟁, 격렬한 국내 분쟁, 세계 관계 등에 모두 훌륭하게 대응해왔다.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전례 없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정상적인 균형 상태가 적절히 유지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전례 없이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는 행동이 요구될 때는 공공 절차상의 정상적인 균형을 잠시 벗어날 수도 있다.

나는 헌법에 명시된 임무에 따라 세계 한복판의 곤경에 처한 국가에 필요한 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이 방안, 혹은 의회가 경험과 지혜로부터 끌어낸 또 다른 방안을 나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 안에서 신속히 채택할 것이다.

설령 의회가 두 방안 중 어느 하나도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혹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라 해도 나는 그로써 감당해야 할 명백한 의무를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위기상태에 맞서기 위해 남은 한 가지 수단을 의회에 요구할 것이다. 즉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나는 외적의 침략을 받을 시 내게 부여될 권한

만큼이나 광범위한 집행권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께 받은 신뢰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용기와 헌신으로써 보답할 것이다. 그렇게 해낼 수 있다. 우리는 거국적으로 단결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눈앞의 이 고된 시기에 맞설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오랜 세월 소중하게 여겨온 도덕적 가치를 뚜렷이 의식할 것이며, 노인이든 젊은이든 자신의 의무를 엄격히 수행하면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것이다. 통합적이고 영속적인 국민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은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취할 권한을 위임해 왔다. 그들은 지도자에게 규율과 비전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할 도구로 임명했다. 선물을 받듯 나는 그 임무를 받아들일 것이다.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겸허히 신의 축복을 기원한다. 신이시여,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주소서. 다가올 날들에 나를 인도해 주소서.

3. 1941년 1월 6일 의회 연설

루스벨트는 1941년 1월 6일 의회에 보내는 연두 시정연설에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4개의 자유를 구현하는 세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익을 위해 꼭 방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에 원조해 줄 것을 의회에 호소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은 국내의 고립주의 여론과 관계없이 이미 악화일로에 있는 국제 정세에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국내외에 표명한 것이었다. 그 해 3월 미 의회는 이 시정연설에 나타난 정신에 입각해 70억 달러의 지출을 승인하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을 통과시켰다.

자유 개념을 확대한 이 연설은 그 후 인권 운동의 발전에 기여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늘릴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연설이기도 하다.

나는 합중국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중대한 순간에 이 연설을 한다. 내가 '유례가 없었다'는 말을 쓰는 것은 현재까지 미국의 안전이 오늘날처럼 외부로부터 커다란 위협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주적 생활 방식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공격에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유해 선전을 극비리에 펼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선전을 행하는 자는 지금도 평화로운 나라들의 협력을 파괴하고, 불화를 증대시키려 한다. 그러한 공격이 지난 1년 4개월 동안 크고 작은 독립 국가에서 민주적 생활양식을 파괴해 버렸다. 파괴를 감행하는 자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고, 대국과 소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합중국 전반의 정세를 의회에 보고할' 헌법상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안전,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와 안전이, 우리의 국경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휘말려 들고 있다고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는 바다.

.....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미국이 혼자서 전 세계를 방어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미국인이라면 독재자가 주는 평화가 결코 국제적 관용, 진정한 독립의 회복, 세계적 균축,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상업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평화는 우리 미국이나 우리의 우방 국가들에게 결코 안전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얼마간의 일시적인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방기하면 자유도 안전도 기대할 수 없다."

하나의 국민으로서 우리 미국인이 선한 존재라는 사실은 자랑할 만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착하기만 해서 안 될 사정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럴듯한 소리로 '융화'를 말하는 자에 대하여 늘 경계를 해야 한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자들이 미국이라는 독수리의 날개를 잘라서 자기 자신을 위한 털방적으로 쓰려는 것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대양으로 떨어져 있는 미국은 직접적인 침략을 즉각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의견이 자주 발표되고 있다. 확실히 영국 해군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해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천 마일의 대양을 횡단하여, 미국 본토에 군대를 상륙시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적군이 있다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 수년간의 유럽 전투에서 많은 교훈을 배웠다. ... 침략의 첫 단계는 정규군의 상륙은 아닐 것이다. 필요한 전략 지점은 비밀 공작원과 그들에게 속은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다. 그들의 다수가 이미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격의 시기와 위치와 방법을 택하는 것은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아메리카 대륙의 공화국이 중대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우리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시정연설을 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행정부의 구성원들은 물론 의회의 구성원들 또한 중대한 책임과 의무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현재의 사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과 정책이 주로 그리고 거의 배타적으로 이 외적의 위협에 대한 대처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국내 문제는 이 중대한 비상사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국가 정책은 모든 시민의 권리와 위엄에 대하여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왔다. 외교 문제에 관한 우리의 국가 정책도 강대국이나 약소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권리와 위엄에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왔다. 그러한 도덕의 정의는 결국 승리해야 할 것이며, 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한 국가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때 그 국가의 손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비상사태, 가령 전쟁 자체와 같이 중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요구하는 희생은 용감히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 방위 준비의 속도와 능률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가적 필요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은 또한 군비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사회혁명이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하나의 동인이 되고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에 있다. 지금은 분명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할 때다. 탄탄하고 건전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엇이나고 한다면, 분명한 것이 있다. 우리 시민이 정치나 경제 제도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것은 단순하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청년들에게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기회의 균등,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위한 일자리, 경제적 삶의 안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장, 소수의 특권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시민적 자유를 유지하게 하는 것, 생활 수준의 상승과 그 과정에서 과학적 성취를 누리게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요구지만,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정치나 경제 제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기대를 실현하는가에 따라서 그 제도의 내적 영속성의 강도가 정해진다. 우리의 사회나 경제에 관계된 문제로서 즉시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많다. 예를 들면 우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노후 연금과 실업 보험의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의료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고용 혜택을 받을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우수한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했다. 거의 모든 미국인이 기꺼이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본질적이고 인간적인 자유에 기초를 둔 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다. 첫 번째 자유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다. 그것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인 자유다. 두 번째 자유는 종교의 자유다. 즉,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을 예배할 자유다. 이것도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있는 보편적 자유다. 세 번째 자유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다. 모든 나라가 그 나라 시민을 위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전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인 자유다. 네 번째 자유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다. 이것을 세계적인 규모에서 생각한다면 군축이 철저히 추진되고, 어떠한 나라도 인접국에 대하여 물리적 침략 행위를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자유다.

이러한 것들은 먼 미래에나 실현될 수 있는 천년 왕국의 환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 우리의 세대에서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의 실제적 기초다.

.....

우리 미국의 역사는 그 시작부터 변혁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항구적인 평화 혁명이었다. 격변해 가는 조건에 착실하고 조용하게 적응해 가며 전진하는 혁명이다. 거기에는 강제 수용소도 없고 웅덩이에 생석회를 투입해 시체를 처리하는 일도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세계 질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이 서로에 우호적인 문명사회를 형성해 가며 협력하는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 나라는 그 운명을 그 수백만의 자애로운

남녀의 손과 머리와 가슴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신념을 신의 인도에 의지하고 있다.

자유란 어디서나 인권의 최고선이다. 우리의 지지는 그 인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강인함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로 통일되는데 있다. 그 숭고한 이념에는 오직 승리 말고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제3장

오바마와 현대 수사학

- 제1절 왜 오바마 연설인가
- 제2절 오바마 연설의 특별함
- 제3절 연설의 능력을 자각한 오바마
- 제4절 현대 정치 연설의 신기원을 이룬 오바마
- 제5절 말을 가치 있게 만든 정치가
- 제6절 '냉소의 정치' vs '희망의 정치'
: 오바마의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제 1절 왜 오바마 연설인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05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안에서 흑인 거주자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인 뉴올리언스에 거대한 허리케인이 덮쳐 2천 명이 넘는 흑인이 사망하고 50만 명의 흑인들이 이재민이 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 그때 미국의 10대 일간지 중의 하나이자, 대표적인 보수신문 〈시카고트리뷴〉은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와 함께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을 나란히 인터뷰했다. 두 사람 모두 뉴올리언스에 다녀온 뒤였다.¹⁷⁾

제시 잭슨 목사는 “나는 뉴올리언스에서 거대한 인종 시장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 비극은 불가피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종차별이 만든 사회 문제라고 그 성격을 정의했다. 인종차별이라는 미국의 원죄 때문에 결국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며 격렬한 언어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가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부정의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다. 다만 분노에 그친 것이 문제였다.

오바마는 “나는 뉴올리언스에서 거대한 가능성을 보았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뉴올리언스의 비극을 슬퍼하며 그날 밤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한 미국인들 가운데는 흑인들만 있지 않았다. 거기에는 백인도 있었고 히스패닉도 있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뉴올리언스로 달려온 자원봉사자는 흑인들만이 아니었다. 백인도 있었고 히스패닉도 있었고 아시아인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깊은 연대감이 있었고,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비극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다.”

오바마는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기득권’, ‘진보와 보수’, ‘흑인과 백인’과 같은 막다른 이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견과 차이를 더 키우고 확대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아니라, 이견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기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넓은 협력의 기초를 모색하는 일을 정치의 역할로 생각했다. 즉자적으로 생각한다

17) 이 사례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멘델(2008)에서 볼 수 있다.

면, 좌와 우든, 진보와 보수든, 백인과 흑인이든 서로 공유하고 연대할 수 없을 테지만, 정치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오바마의 정치 수사학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대판 키케로(Modern Cicero)’나 ‘새롭게 등장한 키케로(New Cicero)’ 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Higgins, 2008).

하지만 정치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새로운 측면보다 오바마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수사학에 충실했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 (로마에서 정치가들이 걸쳤던 옷) “토가(toga)를 입은 연설가”로 표현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오바마가 지금까지 없던 현대적 수사학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중세 이후 단절된 고대 민주정의 수사학과 공화정의 수사학의 장점을 인터넷과 SNS 그리고 빅데이터가 압도하는 최첨단의 시대에 불러들였다는 것이 좀 더 사실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들의 정치 언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엘빈 T. 림(Lim, 2008)을, 오바마의 정치 연설을 가리켜 ‘반지성주의적 대통령(The Anti-Intellectual Presidency)’으로의 퇴락 경향(the decline of Presidential rhetoric)을 벗어나기 시작한 계기로 평가했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오바마는 고대 수사학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대표적인 정치가가 아닐 수 없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수사학의 요소는 점증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3쌍의 어구(tricolon)를 자주 사용한 것에 있다. 고대 로마의 케사르의 사례(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나 링컨의 사례(민중의;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에서 보듯, 오바마도 “오늘 밤;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였다; 고층빌딩의 높이, 군사력의 크기, 경제의 규모 때문에 모인 게 아니다.”라든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100년, 10년, 1년”처럼 3번의 표현을 통해 감정의 고조를 이끄는 수사법을 즐겨 사용했다(박성희, 2009 ; Leith, 2012).

“미국의 노동자, 미국의 가정, 미국의 중소기업”처럼 어구반복의 수사법(anaphora)도 즐겨 동원되었다. 긴 설명을 생략하고 상징적인 단어만 말하고 넘어가는 암시적 생략법(praeteritio)은 물론 잘 알려진 이름 대신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암시적 은유법(autonomasia)의 사용도 익숙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조지아에서 온 한 젊은 목사(a young preacher from Georgia)가 자신의 꿈에 대해 하는 말을 온 국민이 듣게 한 약속”과 같이 표현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사용한 단어를 뒤에서는 대명사로 표현하는 ‘대용어의 선택(anaphora)’이나 은유를 또 다른 은유

로 뒤에서 반복하는 ‘은유의 전이(epiphora)’ 기법도 즐겨 사용한다. 이 모든 수사학의 기법을 오바마의 2008년 대통령 당선 연설문은 잘 보여준다.

만일 누군가 미국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초기 개척자들의 꿈이 살아 꿈틀거리는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의 민주주의의 힘에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밤이 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일 것이다(If there is anyone out there who still doubts that America is a place where all things are possible; who still wonders if the dream of our founders is alive in our time; who still questions the power of our democracy, tonight is your answer).

이것이 그 대답이다. 이 나라가 그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투표하기 위해 모인 그 긴 줄이 말해 주는 대답이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신념으로 생전 처음 서너 시간을 서서 기다렸던 그 많은 이들이 말해 주는 대답이다; 이번에는 달라야 할 뿐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답이다(It's the answer told by lines that stretched around schools and churches in numbers this nation has never seen; by people who waited three hours and four hours, many for the very first time in their lives, because they believed that this time must be different; that their voice could be that difference).

이것이 그 대답이다. 젊은이와 나이 든 이, 부자와 가난한 이, 민주당과 공화당원, 흑인, 백인, 라티노, 아시아인, 원주민, 동성애자, 비동성애자, 장애인,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이 세상에 보낸 메시지로서, 우리는 절대로 붉은 주나 푸른 주의 컬렉션이 아니라고 소리친 그 대답이다; 우리는 지금도 미합중국이고 앞으로도 늘, 미합중국일 것이라는 대답이다(It's the answer spoken by young and old, rich and poor, Democrat and Republican, black, white, Latino, Asian, Native American, gay, straight, disabled and not disabled Americans who sent a message to the world that we have never been a collection of Red States and Blue States; we are, and always will b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것이 그 대답이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은 이들이 냉소적이고, 두려워하고 의심의 찬 말을 했다; 그런 말을 들어왔던 사람들의 손을 역사의 정점으로 이끌었던 대답이 그것이다; 다시 한번 더 나은 날들에 대한 희망으로 이끌었던 대답이 그것이다(It's the answer that led those who have been told for so long by so many to be cynical, and fearful, and doubtful of what we can achieve to put their hands on the arc of history and bend it once more toward the hope of a better day).

제2절

오바마 연설의 특별함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미국의 많은 정치학자들은 오바마의 연설 스타일과 관련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조너선 체이트, 2017). 케네디를 닮은 듯하지만, 둘은 다르다. 케네디가 훨씬 상층 엘리트적인 세련됨이 있는 반면, 오바마는 전체 사회 계층은 물론 다양한 인종 집단과도 교감할 수 있는 언어 감각을 갖고 있다. 링컨의 정치관을 많이 닮았지만, 문체는 물론 말하는 스타일도 많이 다르다. 루스벨트와도 닮지 않았고, 린든 존슨의 연설을 많이 참조했지만 역시 느낌이 다르다. 오바마 연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전체 줄거리로 삼고 그 위에 자신의 가치관과 비전을 자연스럽게 얹어서 말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그의 연설은 문학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말하는 바, 즉 내용과 줄거리의 단단함이 표현의 힘을 통해 솟구쳐 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다.

한편으로 대중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인 언어의 힘을 억제하지 않는 것도 특별한 점이다. 오바마가 처음 정치를 할 때 많은 민주당 정부 보좌관들은 이를 단점으로 지적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교육받은 흑인이 잘난 척하는 느낌을 준다.”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오바마 참모 진영 안에서도 작은 논란이 있었다. 결론은 미셸이 냈다. 그녀는 왜 흑인은 교육을 통해 얻은 성취를 표현하면 안 되는가를 물으며, 자신의 부모는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 지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매우 기뻐했다고 말했다(버락 오바마, 2007a).

더 중요했던 것은, 오바마의 지적인 어투나 언어가 이상하게도 사회 하층의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민중적이고 대중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오바마 연설이다. 참모들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바마의 연설 스타일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이슈를 ① 깊이 있는 지적인 주제로 다루면서도, ②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웃게 만드는 유머로 시작해 심리적 무장 해제를 도모하는 한편, ③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올 감성적 표현을 통해 이끌어 가는 형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역시 미국 정가의

상식을 바꾼 계기로 작용했다(박성래, 2012 ; 문병용, 2012).

하나 더 지적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가 ‘부분 부정’과 ‘형용 모순’을 잘 사용한다는 데 있다. 달리 말하면 절대적 부정의 느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 인들은 “결코”, “절대”, “당장” 등 센 부사를 습관처럼 동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한다. 그런 태도는 ‘자신이 옳기 위한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일 뿐 문제를 진짜로 다루면서 실제적 변화를 이끄는 노력을 경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전쟁, 경솔한 전쟁, 무책임한 전쟁이다!”와 같은 식이다. 누군가에 대한 추모 연설을 할 때도 특별했다. “우리가 링컨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인간이 가진 위대함과 함께 인간적 한계 또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실감과 진심을 모두 담아 찬사를 한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데이비드 멘델, 2008 ; 조너선 체이트, 2017)

완전한 칭찬, 완전한 반대, 완전한 대안은 정치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모두를 위한 정책은 있기 어렵다. 때로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갈등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변화는 전체와 연결된 부분에서 발생하며, 그렇기에 정치란 전체 정책을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분 부정과 형용 모순의 언어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오바마가 그런 언어가 갖는 힘을 익숙하게 다루게 된 것은 아마도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동시에 영문학을 부전공하면서 셰익스피어 문장을 연구한 덕분이 아닌가 한다. ‘스윗 소로우(sweet sorrow)’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셰익스피어는 누구보다도 인간 삶의 다면성과 형용 모순적인 측면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런 언어를 창조와 변화의 정치 에너지로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오바마다.

제3절

연설의 능력을 자각한 오바마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내 안에 연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바마의 자전적 책,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에 나오는 이야기이자, 오바마가 LA에 있는 옥시덴탈칼리지에 다니면서 학생운동을 했을 때의 한 일화다(벼락 오바마 2007a). 오바마와 그의 선배, 동료들은 학생운동이나 시위에 관심이 없는 대학 내 분위기 때문에 고심했다. 그래서 인권운동을 탄압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해보기로 했다.

오바마에게는 인권운동가 역할이 맡겨졌고 그가 연설하는 도중 경찰과 기관원 역할을 맡은 선배,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하고 진행되는 장면을 연출하면 되었다. 선배들은 오바마에게 별거 아니니 연설하는 척만 하면 된다며 오바마가 긴장하지 않게 했다. 준비했던 퍼포먼스 스타일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오바마가 등장했다.

오바마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진짜로 연설을 했다.” 그가 연설을 하자, 풀밭에서 원반던지기를 하던 남학생들도 던지던 원반을 손에 쥔 채 자신을 향해 돌아섰다. 벤치에 앉아 입 맞추던 커플도 입술을 떼고 자신의 연설에 눈과 귀를 열었다. 경찰과 기관원들 역할을 맡은 선배들에게 연행되면서, 오바마는 역할극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날 시위를 통해 오바마는 그때 자신에게 말의 힘, 주변 사람들을 귀 기울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날 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시위를 마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풀이가 있었다. 오바마의 선배들은 새로운 형식의 시위에 반응이 좋았으며 즐거워했다. 오바마에게도 “벼락! 잘했어, 너 오늘 진짜 같이 연설 하던데.”라고 칭찬을 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술자리가 이어졌다.

진짜로 인권상황을 고발했고, 진짜로 부당하게 끌려갔던 감각을 기억하고 있던 오바마에게 그날 뒤풀이는 낮에 있었던 자신들의 행동을 기만하는 행사 같았다. 퍼포먼스는 그저 하게 되어 있는 연기였을 뿐, 시위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실제적 진실은 사라져 버린 느낌이 들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오바마는 대학 1, 2학년을 술과 마리화나, 담배

로 보냈고, 긴 방황과 빈민 끝에 학생운동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한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다. 부전공으로는 영문학을 했다. 그 가운데도 셰익스피어 관련 과목을 열심히 들었다. 적나라한 힘이 부딪히는 현실주의의 학문인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온갖 형용 모순적인 표현을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가 가진 복잡한 측면을 밝혀준 셰익스피어의 문장을 익혔다는 뜻이다. 이때 오바마는 학과 수업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틈틈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와 같은 중요 고전들을 열심히 독서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졸업 후에는 (뉴욕, LA와 함께 미국 3대 흑인 공동체 도시인) 시카고로 옮겨가 “지역 공동체 조직가(community organizer)” 즉, 흑인 빈민 지역 활동가로 3년간 헌신했다. 그 뒤 “가난이나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간 가졌던 권력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자각과 함께 정치의 길을 준비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고, 흑인 최초로 “하버드법률평론(Harvard Law Review)” 편집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유명인이 되었다. 학업 성적도 뛰어났다. 최종적으로 차석 졸업을 한 후 시카고로 돌아왔다. 운동가로서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제2의 시카고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벼락 오바마, 케냐 출신 흑인 아버지와 캔자스 출신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인도네시아에서 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하와이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뒤, LA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해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을 거쳐 시카고에 정착할 때까지 긴 여정을 거친 그는,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정치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연설의 힘을 가진 정치가’로서 그는 어떤 성취를 보여주었을까?

제4절

현대 정치 연설의 신기원을 이룬 오바마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오바마의 연설을 보다 보면, 수사학에 대한 그의 이해가 매우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부터 현대 수사학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해 온 수사학의 풍부한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¹⁸⁾ 로마 공화정의 수사학을 대표하는 키케로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오바마 연설은 제대로 수사학적이다.

키케로는 그가 후마니타스(Humanitas)라고 부른 인문학적 교양을 강조했고, 그 기초 위에서 말과 글의 힘을 발전시킬 것을 중시했다. 그런 점에서 키케로의 수사학을 가장 가깝게 구현한 정치가라 할까, 아니면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지적인, 오바마만의 연설 스타일을 구현했다고 할까, 아무튼 오바마는 ‘정치 연설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 준 정치가다(조너선 체이트, 2017).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공동체와 국가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또 그 일원으로 살 때만 ‘목적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 국가 공동체를 갖지 못한 난민의 삶을 권장하는 정치학은 없다. 국가 공동체의 운영과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공화주의자들이 오피시움(officium)이라고 정의하는, 일종의 공적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 정치가가 말과 언어의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키케로만큼 이를 강조한 철학자도 없었는데, 그는 수사학을 공익(public good)과 공공선(commonwealth)을 위한 실천적 학문으로 이해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수사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했다. 실제 정치가로서 공화정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정치적 이상은, 말이 자유롭고 풍부한 나라에 있었다. 설득의 힘을 최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정치의 기초라 보았으며, 반대로 독선이나 일방적 주장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폭력과 억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가라면 누구나 자신의 말이 합리적 설득의 기초를 둔 것인지 아니면 분열과 적대를 위한 것

18) 고대 수사학에서 현대 수사학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논의와 기법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 마리아 델 카르멘 가르시아 테헤라(2001) 참조할 것.

인지 늘 돌아봐야 한다.

정치란 분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이 규범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오바마만큼 철저한 정치가는 흔치가 않다. 그는 당파적이기만 한 연설은 하지 않았다. 당파적인 내용을 말할 때도 그것이 공익의 증진과 병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말하지 않았다. 상대 당이나 정치인을 야유하거나 냉소하는 언어는, 적어도 오바마의 연설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진심으로 정치적 예의를 실천하고, 진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말하며, 공익에 헌신하는 자세에 있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우리 정치인들의 경우는 그 반대다. 어떤 자리에서든 상대 당파를 공격하고 야유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민들도 누구나 정치 이야기를 할 때면 개탄과 냉소, 경멸조의 표현을 즐겨 쓰게 되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일수록 말이 거칠고 적대적이다. 한국 정치에서 말은 동료 정치인이나 동료 시민들에게 날카로운 흥기가 된 지 오래다.

오바마 정치 연설은 무엇보다 내용이 아름답다. 자신들만의 세계를 고수하는 편협함이 없다. 언제나 전체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이 그 중심이다. 표현 방식은 물론 연설의 기법도 훌륭하다. 인용, 반복, 대조, 비유, 직유, 환유는 때에 따라 차분하고, 때에 따라 정서적 점증으로 이어진다. 어떤 때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때는 감정의 공유를 경험하게 한다. 연설의 내용과 기법 모두 그를 진실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야말로 그의 연설이 갖는 힘이다.

제5절

말을 가치 있게 만든 정치가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미국에서의 노예제 역사와 인종 문제를 빼고, 왜 오바마인가를 말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흑인 노예제는 “현대 서구 문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원죄(original sin)”라고 불린다. 미국은 그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 자본주의 발전을 흑인 노예제 없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다. 지금도 여전히 흑인의 검은 신체는 백인 인종주의자들에게는 물론 공권력에 의해서도 함부로 파괴되곤 한다. 아프리카를 포함해 비서구 지역 전반에 드리웠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 미국의 인종 문제는 민주당의 흑인 대통령 후보의 등장과 함께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런 속에서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소수 인종의 민주적 성취를 상징한다. 지금 미국의 전체 시민 가운데 흑인 시민은 얼마나 될까? 약 8분의 1이다. 12퍼센트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미국에서, 게다가 흑인 시민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한 곳에서 소수 인종 대표로서만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오른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니고서는 이를 수 없는, 놀라운 정치적 성취가 아닐 수 없었다.

민주적 성취를 상징한다는 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의 진보적 이상이 가진 인간적 가치가 아닌가 한다. 그는 보수적인 정치가를 자극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비이성적 진보파들과 달랐다. 잘 알다시피, 그는 2008년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2년 재선에 성공해 2016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최고 시민 사령관’ 역할을 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의 행적과 말은 언론 기사와 방송, 뉴미디어를 타고 세계 시민들에게 회자되었다. 무엇 때문일까? 인종과 종교 등 인간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수많은 차별에 항의하면서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간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세계 시민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원주의적 평등을 실천한 정치가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평등하게 상대하

는 것의 가치, 달리 말해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시민적 정중함'(civility)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나은 가능성을 찾고 꾸준히 과업을 확대해 가는 일의 미덕을 강조했다. 소득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화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노동조합을 찾아가라. 노조원이 되어 보라. 노조 조직률이 높은 지역이 교육적 성취도 높고 범죄로부터도 덜 고통받는다는 것을 그간의 통계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한 현직 대통령이었다. “누군가 굶는 아이가 있다면 설령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라고 말했던 정치인이었다. 무슬림들이 부당하게 차별당할 때 그들의 회당을 조용히 방문했고, 히로시마 원폭 피해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발휘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공정한 세상을 향해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할 것을 요청했던 민주주의 지도자였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의 최종적 행사자인 정치체제를 뜻한다. 그런데 그런 시민 주권은 좋은 정치가 없이는 실천될 수 없다. 시민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며 또 그러고자 할 만큼 어리숙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끄는 다양한 과업을, 정부라고 불리는 수많은 공적 기구와 제도를 통해 실천하고자 했다. 그렇다고 그런 기구와 제도를 ‘영혼 없는 시스템’이나 ‘냉혹한 법치’로만 운용되지 않게 했다. 그들은 그런 기구와 제도를 이끌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선출했는데, 그들이 바로 정치가이다.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시민이 자신들의 대표로서 좋은 정치가를 선발해 그로 하여금 공동체를 잘 운영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민주주의는 승부가 난다. 그 일이 정치가 오바마에게 맡겨졌을 때,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설가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려 노력했다.

오바마는 말을 가치 있게 만든 정치인이다. 말과 연설을 정치적 흥기가 아니라 시민적 힘으로 승화시킨 사람이다. 그는 가난한 약자들을 대표하는 정치가가 민주주의의 언어 혹은 ‘정치적 이성’을 갖춘 말을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정치라는 인간 활동이 (권력 다툼과 음모, 간계와 같은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변화와 개선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기에)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추상적인 이론 책보다는 오바마 연설을 참고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이를 통해 민주정치가 가진 놀라운 가능성을 말할 수도 있었고, 이어서 정치철학과 이론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었다. 정말로 오바마는 “민주정치가 무엇 인지를 말해 주는, 좋은 교과서의 역할을 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 흑인을 포함해 인간 사회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고, ‘민주주의는 당신의 참여와 역할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름(소명)을 끊임없이 말해 준 정치가였다.

제6절

'냉소의 정치' vs '희망의 정치' : 오바마의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을 하고 있던 젊은 오바마를 전국적 스타로 만든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이다. 이 연설을 한 뒤 이듬해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었고, 2007년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뒤, 드디어 2008년 대통령이 되었다.

오바마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본 사실이지만, 이 연설 직전 오바마는 자신의 차례가 호명되기 전 무대 뒤에서 미셸과 있었다. 드디어 차례가 되자 미셸과 포옹하고 무대 위로, 마치 마장용 말이 가볍게 걷듯, 경쾌하게 연단으로 나아갔다. 농구선수답게 긴 팔을 뻗고 큰 손을 높이 든 채 무대의 중심에 섰다. 연설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천천히 그의 말에 빨려들었고, 점차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다. 맨 앞쪽에 앉아 있던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케리는, 뭔가에 홀린 듯 입을 벌린 채 연설 중인 오바마를 올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대목에서 나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발레리노로 성장한 주인공 소년 빌리. 그를 보러 탄광 노동자인 그의 아버지와 형 그리고 어린 시절의 친구가 왔다. 무대 뒤에서 그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은 빌리, 드디어 무대가 열리자 멧진 등 근육을 움직여 긴장을 풀고는 가볍게 무대를 가로질러 달려가며 높이 도약한다. 최고의 발레리노로 성장한 빌리의 비상, 그 아름다운 장면을 지켜보는 늙은 광부 아버지의 딱 벌어지는 입, 그야말로 경탄 그 자체였다.

오바마가 연설을 마치자 청중석 맨 뒤에서 한 여성이 거의 깡충깡충 뛰듯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박수를 오래도록 쳤다. 한동안 카메라가 그녀를 잡아 주었다.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민주당의 젊은 스타 정치인의 등장을 누구보다도 환영하던 그때 그녀는 상상이나 했을까? 4년 뒤 저 오바마가 자신을 꺾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연설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감사한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다. 딕 더빈 상원의원님. 당신은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해준다. 미국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교차로이자, 링컨의 땅, 위대한 일리노이주를 대표하여,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에게 오늘 저녁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솔직히 말해, 내가 오늘 이 연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나의 아버지는 유학생이었다. 그는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아버지는 염소를 치면서 컸고, 양철 지붕의 판잣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할아버지는 영국인 가정에서 요리사를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만은 큰 꿈을 품었다. 아버지는 노력과 인내 끝에 마법과도 같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다. 바로 미국이었다. 아버지 이전의 수많은 이민자에게도 자유와 기회의 빛을 비춰준 등대 같은 곳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케냐의 지구 반대편 캔자스 주에서 태어난 분이였다. 어머니의 아버지는 대공황 시기 내내 유정과 농장에서 일했다. 진주만 사태가 발발한 다음 날, 외할아버지는 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패튼 장군의 지휘 아래 유럽 대륙을 누볐다. 그동안 외할머니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면서 폭격기 조립 라인에서 일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두 분은 GI 법안¹⁹⁾의 보조를 받아 학업을 마쳤다. <연방주택국>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나중에는 서쪽의 머니먼 하와이로 기회를 찾아 떠났다. 그 두 분 역시 딸에 대해서 큰 꿈을 품었다.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품어진 꿈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같은 꿈이었다.

연설의 첫 번째 주제는 꿈(dream)이다. 그것도 하나의 같은 꿈이다. 케냐 출신 아버지와 미국 남부 출신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꾸는 꿈. 더 넓히면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꿈을 다뤘다. 흔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리는 이 주제를 가장 감각적으로 잘 다룬 대표적인 연설이 아닐 수 없다.

나의 부모님은 불가능에 가까운 사랑을 나눴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에 대해 굳건한 신념을 공유했다. 부모님은 버락이라는, 아프리카 말로 “축복받은”이라

19)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220만 명의 군인들에게 사회에 적응하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재정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셨다. 미국이라는 관용적인 나라에서는 이름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으리라 믿으셨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학교에 가기를 기대하셨다. 미국이라는 관대한 나라에서는 돈이 있어야만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은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 하지만 오늘날만큼은 하늘에서 자랑스럽게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물려받은 유산의 다양함에 대해 감사한다. 부모님의 꿈이 소중한 나의 두 딸을 통해 지속될 거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고 있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방대한 미국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부라는 사실, 이는 앞서 살았던 모든 선조들 덕분이라는 사실, 지구상 다른 나라에서라면 나의 이야기가 불가능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오바마는 개인사를 좋아한다. 개인사를 곧 미국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민자 개인의 역사는 곧 전체로서의 미국사를 구성하는 부분들이고, 그게 미국의 장점이자 자랑거리라는 것이 오바마의 일관된 메시지다. 그래서 알렉스 헤슬리의 『뿌리』를 연상시키는 오바마 개인의 역사는 미국이 가진 다양성의 원천이자 발전의 원동력으로 이해되게 만든다. 이 뿌리와 원천에 대한 이야기는, 출간 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던 그의 책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에서 훨씬 풍부하게 다뤄진 바 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이 나라의 위대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였다. 우리가 높은 빌딩을 갖고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군대가 강해서 위대한 것도 아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서도 아니다. 우리가 가진 자부심의 원천은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명제에 있다. 그것은 이백 년 전의 어느 한 선언문에 정리되어 있다.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불가침의 권리를 주셨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있다.”

미국이 가진 진정한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박한 소망들에 대한 신념, 그리고 작은 기적들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다. 그것은 밤에 아이들을 편안히 잠재울 수 있다는 데 있다. 아이들을 굶주리지 않고 따뜻하게 입히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가감 없이 쓰더라도 갑작스

레 누군가 우리 집에 들이닥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뇌물을 바치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반영될 거라는 데에 있다. 늘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대개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소박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가치와 그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오늘의 현실과 냉정하게 견뎌보고, 과연 우리가 선조들의 유산과 후대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드디어 이 부분에서 오바마는 자신의 장기 가운데 하나인 ‘반복을 통한 감정의 점증’을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 연설을 보면 앞서 조용히 오바마의 개인사를 듣던 청중들이 열광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한다. 젊은 오바마의 패기 넘치는 연설이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중저음의 톤으로 바뀌었지만, 이때 오바마는 확실히 젊고 도전적인 연설 태도를 보였다. 내용도 훌륭하다. 미국의 전통과 가치, 그 위대함에 대한 오바마의 매우 인상적인 해석이 잘 드러난다. 그것은 흑인 진보파와 백인 진보파 사이의 갈등과 차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시각이자, 히스패닉과 무슬림을 포함해 다양한 집단의 존재와 그들의 정체성을 분열이 아니라 공존하게 하는, 일종의 다원주의적 사고의 역할을 하는 정치론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는 “흑인 맞아?” 혹은 “진보 맞아?”와 같은 냉소와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최대 다수의 인종 연합을 가능케 하고 그를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만든 정치론이 아닐 수 없다. 그에게서 ‘오바마주의’라고 부를만한 특별함이 있다면, 개인과 집단의 차이를 넘어 미국 사회를 통합으로 이끄는 전통과 가치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이다. 그것은 인종과 계급의 차이와 상관없이 평등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모두의 존중을 요청하는 그의 연설에서 잘 나타나 있다.

동료 미국 시민 여러분, 민주당원 여러분, 공화당원 여러분, 비당원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아직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일리노이 주 게일스버그시에서 만난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 멕시코로 이전하는 메이태그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실직하고 나서는 시급 7달러 일자리를 두고 자식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 노동자들을 위해 할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일자리를 잃고

나서 한 달에 4,500달러나 하는 아들의 약값을 의료보험 없이 어떻게 대야 하나 눈물을 삼키며 걱정하던 아버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세인트루이스시 동쪽에 사는 어느 젊은 여성의 경우에서처럼 학점도 좋고 추진력과 의지도 있지만 학비가 없어서 대학에 가지 못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란다. 그곳이 작은 마을이든, 큰 도시이든, 동네 식당이든, 상업 지구이든 간에,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럴 준비도 되어 있다. 시카고 근교의 소도시들에 가보라. 시민들은 복지기관이나 국방성이 자신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싫다고 말한다. 도심 한복판의 동네에 가보라. 시민들은 정부의 도움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한다. 부모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텔레비전을 끄고 책 읽는 흑인 아이가 백인인 척한다는 냉소적 비아냥거림을 듣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뻗속 깊이 인지하고 있는 확고한 사실은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만 조금 바뀌도 미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인생의 출발을 보장해주고, 기회의 문을 열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선택하고자 하고 있다.

역시 반복을 통한 감정의 점증이 이어진다. 주제로는 미국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원 자체부터가 유럽에서 정부의 박해를 피해 종교적 자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고, 미국의 독립 혁명과 헌법 제정 역시 정부에 대한 깊은 의심을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서 자유주의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는 그럴 수가 없다. 정부 역할의 증대를 개인 자유의 침해와 동일시하는 미국적 전통 속에서 어떻게 정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할 수 있을까?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오바마만큼 이 문제를 잘 다루는 사람도 드물다. 로널드 레이건의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늘 설득력을 갖는 상황에서, 그는 “정부가 완전한 해결책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정책의 방향이나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에 있어 작은 변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기회와 가능성은 크다. 개인의 자조와 자립을 도와줄 수 있고 개개인을 더 책임감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과 개인의 자율성은 배타적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양립될 수 있다.”라는 논변을 그는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바로 변화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 후보로 내세운 사람은 이 사회가 추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들을 두루 지닌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바로 존 케리이다. 존 케리는 공동체, 믿음, 봉사의 삶을 살아왔다. 베트남에서 용감하게 군 복무를 하던 시절부터, 검사 생활을 하고 부지사로 일하고,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 간 그는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왔다. 우리는 그가 매번 쉬운 선택을 마다하고 어려운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그가 추구해온 가치와 지난 이력들은 우리가 이뤄가야 할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존 케리는 성실함이 보상을 받는 미국을 생각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해외로 돌리는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주기보다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존 케리는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리길 원한다. 존 케리는 에너지 자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석유 회사들의 이윤 논리와 해외 유전의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에 속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케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믿는다. 그는 절대로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를 희생시키거나, 종교적 신념을 이용하여 분열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존 케리는 험한 세상에서 때로는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전쟁이 자연스러운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얼마 전에 일리노이주의 이스트멀린에 있는 해외참전용사회관에서 시머스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는 흰칠하게 생긴 젊은이었다. 키 188에 또렷한 눈, 편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해병대에 입대했고 다음 주에 이라크로 파병된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임무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를 볼 수 있었다. 이 젊은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라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과연 시머스가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우리도 시머스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900명의 남녀, 그의 아들딸, 남편과 아내, 친구와 이웃들을 떠올려보았다. 이전보다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야 하는 많은 가족이 떠올랐다. 또는 신체 일부가 절단되거나 신경이 손상되어 돌아왔지만 예비역이라는 이유로 장기 의료보험 보장이 안 되는 이들의 가족이 떠올랐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보낼 때에는, 적어도 통계를 조작하거나, 참전 이유에 관한 진실을 숨기지는 말아야 한다. 그들이 떠나있는 동안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이 돌아온 뒤에는 보살펴 주어야 한다. 승리, 평화, 세계인의 존경. 이를 얻을 만한 병력과 명분을 갖추지 못하는 한, 전쟁을 절대로, 절대로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성한 의무가 정부에게는 있다.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세상에는 적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추적하고 찾아내고 응징해야 할 적들이 있다. 존 케리는 이 점을 알고 있다. 케리 중위가 베트남에서 함께 한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존 케리 대통령 또한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이 전당대회에 본래 목적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케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정치관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어지는 연설 내용이야말로 하이라이트다. 그는 존 케리에 대한 지지를 말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의 정치관으로 채운다. 그것도 매우 열정적인 반복과 설득력 있는 희망의 열정을 통해서 말이다. 그는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사이의 선택이 아닌 지금까지의 정치와는 다른, 자신이 하고자 하고 청중에게 함께 하자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변화의 정치'를 말한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선택, 진보와 보수 사이의 선택, 남부와 북부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양극화 정치' 혹은 '적대와 분열의 정치'를 지속하는 선택일 뿐이다. 다른 선택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속에서의 연대와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는 선택이 그것이다. 변화의 정치인가 정체의 정치인가. 냉소의 정치인가 희망과 가능성의 정치인가.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이 선택에 달려 있다. 오바마는 이러한 정치관을 이후 그가 대통령이 되고 퇴임한

뒤에도 언제나 견지해왔다. 그리고 언제나 이 부분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연설했고 또 가장 열렬한 청중의 반응을 얻었다. 이제부터는 오바마가 청중의 파토스를 최고조로 이끌며 주고받는 단어의 매력을 감상할 차례다.

존 케리는 미국을 믿는다. 오직 소수의 몇몇만 잘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치 안에 깊이 자리잡은 개인주의의 다른 한편에 또 다른 요소가 합쳐져서 미국이라는 웅장한 전설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다. 만약 시카고 남부지역에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건 내 아이의 문제다. 어딘가에서 어떤 노인들이 약값을 낼 돈이 충분치 않아서, 약값과 집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내 삶이 궁핍해지는 일이 된다. 아랍계 이민자 가족이 법적 도움이나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구속된다면, 그건 나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믿음,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돌봐주어야 할 형제자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한다. 그 믿음 때문에 각자가 개인의 꿈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이라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다. E pluribus unum(미합중국을 상징하는 문장 속에 새겨져 있는 문구).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흑색선전을 퍼뜨리는 사람들, 이들은 분열의 정치로 치닫는 일을 한다. 바로 지금, 그들에게 말해두고 싶은 게 있다. 진보적인 미국, 보수적인 미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미합중국이 있다. 흑인들의 미국과 백인들의 미국과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 미국이 따로 있지 않다. 오직 미합중국이 있을 뿐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우리나라를 붉은 주와 파란 주로 잘게 썰고 나누길 좋아한다. 붉은 주는 공화당, 파란 주는 민주당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그들에게도 말해 둘 것이 있다. 파란 주에 사는 사람들도 위대한 신을 경배한다. 붉은 주에 사는 사람들도 연방 수사요원들이 도서관에 기웃거리는 것을 싫어한다. 파란 주에 사는 사람들도 어린이 야구단 코치로 활동하고, 붉은 주에 사는 사람들도 동성애자 친구 하나쯤은 있다. 애국자 중에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사람도 있고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사람도 있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다. 우리 모두 성조기를 보며 충성을 맹세하고 있고, 우리 모두 미합중국을 지키고 있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냉소의 정치인가, 희망의 정치인가. (청중들 Hope! Hope! 연호) 존 케리는 여러분을 희망의 정치로 부르고 있다. 존 에드워즈가 희망의 정치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 나는 지금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실업자 문제를 잊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처럼, 마치 의료보험 사태를 무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도 하는 것처럼,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서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노예들의 희망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떠나면 이국땅을 향해 떠나는 이민자들의 희망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용감하게 메콩강 삼각주를 순찰하는 젊은 해군 중위의 희망을 말하자는 것이다. 불가능을 향해 도전하는 공장 노동자 아들의 희망을 노래하자는 것이다. 빼빼 말랐고 이름도 이상하지만 미국에 자신의 자리도 있다고 믿는 아이의 희망을 말하자는 것이다.

희망! 역경 속에서의 희망! 불확실함 속에서의 희망! 그 담대한 희망! 이것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이 나라의 확고한 기반이다. 보이지 않지만 신념을 갖는 것. 더 나은 날들이 앞에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나는 중산층의 어깨에서 짐을 덜어내고 일하는 가정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나는 실업자들에게는 직업을,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제공하고, 그리고 전국의 각 도시에 사는 젊은이들을 폭력과 절망으로부터 구해낼 것이라 믿는다. 나는 지금 우리가 도덕적 정당성을 안고 있다고 믿는다. 역사적 기로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우리 앞에 놓인 소명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나는 믿는다.

미국 시민 여러분! 오늘 밤 내가 느끼는 이 에너지를 당신도 느끼고 있다면, 이 절박함이 느껴진다면, 이 열정이 느껴진다면, 이 희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한다면, 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굳게 믿는다. 전 국민이 플로리다주에서 오레곤주까지, 워싱턴주에서 메인주까지, 11월에 모두 일어나 나설 것이고, 존 케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존 에드워즈가 부통령에 취임하여 이 나라가 본래의 믿음을 되찾고 정치적 암흑기에서 벗어나 더 밝은 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감사한다. 신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미국에도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오바마 연설이 끝난 뒤 방송사들은 앞다퉀 전당대회 청중들의 반응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찍었다. 청중들은 한결같이 흥분감을 표현했다. 민주당에 “라이징 스타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 연설이 없었다면 오바마가 4년 뒤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현대 민주정치의 언어와 규범을 익히는 데 있어서 오바마 연설이 갖는 가치는 크다. 오바마는 정치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한 ‘전투 수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민 집단들을 더 넓게 통합하기 위해 선용해야 할 ‘민주적 수단’으로 이해한다. 정치 언어를 상대 정파를 공격하는 흥기가 아니라 그들과의 공정하게 논쟁하고 합리적으로 협력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이견을 갖는 시민 집단 사이에서 적대와 증오를 줄이고 ‘시민적 정중함’(civility)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저열한 공격 앞에서도 시민적 품격을 잃지 않는 정치를 꿈꿨다.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도 ‘자신만이 옳기 위한’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더 넓은 연대의 가능성에 기대를 건 정치가였다. 한마디로 말해 오늘날과 같은 ‘정치 양극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치 연설의 한 전형을 만든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보고서의 결론으로 그로부터 기원하는 ‘오바마 스타일’이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오바마처럼’ 말하고 연설하는 정치가들이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2. 웹 사이트

참 고 문 헌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문헌자료

- 게리 월스 지음, 권혁 옮김, 2012, 『링컨의 연설』, 돈을세움
- 곽준혁, 2016, 『정치철학 다시 보기』, “15장 쿠인틸리아누스 : 이상적인 연설가는 왜 육성해야 하는가?”
- 노르베르토 보비오 지음, 황주홍 옮김, 1999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문학과지성사
- 데이비드 멘델 지음, 윤태일 옮김, 2008, 『오바마, 약속에서 권력으로』, 한국과미국
-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음, 안재원 옮김, 2006, 『수사학 - 말하기의 규칙과 체계』, 도서출판길
- 문병용 지음, 2012, 『오바마의 설득법』, 길벗
- 미국정치연구회 편, 2013, 『어게인 오바마』, 오름
- 박상훈, 2015[2011], 『정치의 발견』, 후마니타스
- 박상훈, 2013, 『민주주의의 재발견』, 후마니타스
- 박상훈, 2017,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도서출판 이음
- 박성래 지음, 2012, 『역전의 리더 검은 오바마』 랜덤하우스코리아
- 박성희, 2009, “대통령 취임연설의 제의적(Epideictic) 특성 수사분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중심으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11권
- 버나드 마빙 지음, 곽준혁 옮김, 2004, 『선거는 민주적인가 -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마니타스
- 버락 오바마 지음, 이경식 옮김, 2007a,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랜덤하우스코리아
- 버락 오바마 지음, 홍수원 옮김, 2007b,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 랜덤하우스코리아

셸던 월린 지음, 강정인, 이지윤, 공진성 옮김, 2007, 『정치와 비전 1 - 서구 정치사상사에서
의 지속과 혁신』, 후마니타스

수잔 스위머 지음, 최유나 옮김, 2009, 『미셸 오바마 스타일』, 장서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2018,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크로스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천병희 옮김, 2009, 『정치학』, 도서출판숲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천병희 옮김, 2017, 『수사학 / 시학』, 도서출판숲

안재원, “키케로 수사학, 서양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2006)의
해제

조너선 체이트 지음, 박세연 옮김, 2017, 『오바마의 담대함 : 버락 오바마는 어떻게 비판을
이겨내고 확고한 유산을 창조했는가!』, 성안당

W. 타타르키비츠 지음, 손효주 옮김, 2005, 『타타르키비츠 미학사 (1권 고대 미학)』 미술문화

투키디데스 지음, 천병희 옮김, 2011,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도설출판숲

페리클레스·뤼시아스·이소크라테스·데모스테네스 지음, 김현·장시은·김기훈 옮김,
2015, 『그리스의 위대한 연설』, 민음사

플라톤 지음, 천병희 옮김, 2014, 『고르기아스 / 프로타고라스 - 소피스트들과 나는 대화』,
도서출판숲

호세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게레로, 마리아 델 카르멘 가르시아 테헤라 지음, 강필운 옮김,
2001, 『수사학의 역사』, 문학과지성사

Higgins, Charlotte, 2008, “Barack Obama, the New Cicero”, *The Guardian*, Nov.
26.

Leith, S., 2012, *You Talking to Me?: Rhetoric from Aristotle to Obama*, Profile
Books.

Lim, Elvin T. 2008, *The Anti-Intellectual Presidency : The Decline of Presidential
Rhetoric from George Washington to George W. Bush*, Oxford Univ. Press

- Marcus Fabius Quintilianus, *Quintilian's Institutes of Oratory : Or, Education of an Orator, Literally Tr. with Notes, By J.S. Watson.* 퀸틸리아누스 지음, 전영우 옮김, 2014, 『스피치 교육 - 변론법 수업』, 민지사
- Thucydides, (Henry Dale Trans.), 1849,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H. G. Bohn
- Thucydides, (Tomas Hobbes Trans.), [1628]1989,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The Univ. of Chicago Press
- Thucydides, (William Jennings Bryan Trans.), 1906, *The World's Famous Orations*, Funk & Wagnalls
- Thucydides, (Rex Warner Trans.), 2000,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Penguin Books
- Thucydides, (Richard Crawley Trans.), 2004,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Dover Publications Inc.

2 웹사이트

- <https://www.loc.gov/search/?fa=subject:speeches,+addresses,+etc>
- <https://www.americanrhetoric.com/newtop100speeches.htm>
- <https://www.americanrhetoric.com/barackobamaspeeches.htm>
- <http://nafi.re.kr/nafi/story/think.do?mode=view&articleNo=1654&article.offset=10&articleLimit=10>

Abstract

What norms of speech should lawmakers abide by?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rms of speech that lawmakers as legislators should act upon.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brings up the tradition of rhetoric, with the aim of reviving the philosophical tradition of rhetoric so that lawmakers can speak in proper political language in order to unify their communities. Chapter 1 focuses on Aristotle and Cicero's philosophical tradition. Aristotle's rhetoric deals with the themes of logos, pathos, and ethos. Cicero's rhetoric focuses on discovery, placement, expression, memory, and action. Chapter 2 examines examples of rhetorical standards, such as speeches by politicians that are representative examples of public speech. Focusing on Pericles' funeral address in the 5th century BC and Lincoln's speech 150 years ago, this report analyzes the influence of Greek rhetoric that persisted for over 2,000 years. Other speeches by Churchill, De Gaulle, and Roosevelt during World War II show the virtues of Roman republicanism, such as honor and courage against fear, greatness, and sacrifice. Chapter 3 covers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s speech. As the first black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e has been referred to as 'the modern Cicero.' The power of speech was the biggest driving force behind Obama's political success in America, where racism is severe and black voters account for only one-eighth of all voters.

국회의원은 어떤 말의 규범을 준수해야 할까

인 쇄 2020년 12월 27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현 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층 222호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2020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0858-39-7 (93300)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